

朝鮮朝 經筵에서 宣祖의 讀書歷 考察*

A Study on the Seonjo's Reading Career in the
Gyeongyeon(經筵) of Joseon Dynasty

金 重 權 (Kim, Joong-gwon)**

◁ 목 차 ▷

- | | |
|--------------|------------------|
| 1. 緒 言 | 4. 讀書回數 및 讀書沮害要因 |
| 2. 宣祖의 經筵制度 | 4.1 讀書回數 |
| 3. 讀書日程 및 行態 | 4.2 讀書姿勢와 沮害要因 |
| | 5. 結 言 |

< 초 목 >

본 연구에서는 조선조 14대 왕 선조의 독서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實錄을 통해 재위 41년간 그의 독서행태를 일정별로 살펴보았다. 선조는 16세에 왕위에 올라 경연제도를 재정비하고 그 제도에 따라 경연관들과 함께 독서를 하였다. 당시 그가 읽었던 책과 독서행태를 조사한 뒤 그의 독서 횟수 및 독서환경에 저해가 된 원인 등을 밝혔다. 그 결과 선조가 재위 41년간 읽었던 책은 「禮記」, 「大學」, 「論語」, 「小學」, 「近思錄」, 「孟子」, 「大學或問」, 「中庸」, 「書經」, 「大學衍義」, 「春秋」, 「通鑑綱目」, 「詩傳」, 「周易」 등 총 14종이며, 독서 횟수는 3강과 야대를 합해서 총 483회로 1년의 독서량도 되지 않았다. 경연관 역시 실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 왕조에 비해 형식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선조 자신도 신체적인 문제, 당파싸움, 7년간의 전쟁 등의 이유로 거의 독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要語: 宣祖, 「禮記」, 「大學」, 「論語」, 「小學」, 「近思錄」, 「孟子」, 「大學或問」, 「中庸」, 「書經」, 「大學衍義」, 「春秋」, 「通鑑綱目」, 「詩傳」, 「周易」

* 본 연구는 2013학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 문헌정보학과 교수(jkkim@gwangju.ac.kr)

접수일: 2013년 8월 26일 최초심사일: 2013년 9월 11일 심사완료일: 2013년 9월 28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eonjo's reading career in the Gyeongyeon(經筵) of Joseon Dynasty.

To investigate the Silrog(the book which records the history of Korea), it knew the reading material, a reading act and attitude which he read in the Crown prince time. Major findings are as the follows;

The reading materials that he read for 41years were 14 titles, that is, *Yegee*(禮記), *Daehag*(大學), *Noneo*(論語), *Sohag*(小學), *Guensarok*(近思錄), *Maengja*(孟子), *Daehaghogmun*(大學或問), *Jungyong*(中庸), and *Seogyong*(書經), *Daehagyeonui*(大學衍義), *Chunchu*(春秋) including *Gangmok*(綱目), *Sijeon*(詩傳), *Juyeog*(周易) etc. The number of times that he participated to the reading discussion was 194(朝講), and the Jugang(晝講) was 83, Seoggang(夕講) was 84. He was the king who disliked reading, moreover he was not almost present at the reading discussion of the Gyeongyeon(經筵) at the end of long-term seizure of power. As a result, the analysis showed that King Seonjo grow up with less reading then in past Kings.

Key words: *Yegee*(禮記), *Daehag*(大學), *Noneo*(論語), *Sohag*(小學), *Guensarok*(近思錄), *Maengja*(孟子), *Daehaghogmun*(大學或問), *Jungyong*(中庸), *Seogyong*(書經), *Daehagyeonui*(大學衍義), *Chunchu*(春秋), *Gangmok*(綱目), *Sijeon*(詩傳), *Juyeog*(周易), Seonjo(宣祖)

1. 緒 言

선조는 중종의 여섯째 비인 창빈 안씨의 소생 덕흥군 이초의 셋째아들 하성군이다. 덕흥군의 소생으로는 하원군, 하릉군이 있었으나 명종이 하성군을 제일 좋아하여 발탁되었다고 한다. 선조는 1552년(명종 7)생으로 초명은 균이었다가 명종 22년에 昞으로 개명하였다. 1567년 7월에 명종이 후사 없이 죽자 16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며, 1608년 2월까지 40년 7개월을 집권하였다. 선조는 재위하면서 경연을 재정비하여 경연관들과 독서에 열중하려 노력하였다. 초기에는 성리학의 거두로 일컬어진 이황(1501-1570), 기대승(1527-1572), 이이(1536-1584) 등이 선조의 독서에 관여하였다. 선조 3년(1570)에는 이황의 죽음으로 인해 김효원과 명종비 인순왕후의 동생 심의겸의 대립으로 분당되었으며, 주리철학을 주장한 조식(1501-1572), 이황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동인(영남학파), 주기철학을 주장한 이이와 성혼(1535-1598)을 따르는 서인(기호학파)으로 분리되었다. 1591년 세자 책봉 문제로 서인이 실각하고 동인이 득세하지만 서인들의 숙청과정에서 동인은 다시 두 파로 나누어지게 된다. 서인 정철(1537-1594)을 두고 사형시키자는 과격파와 귀양을 보내야 한다는 온건파로 나누어진다. 과격파인 전자를 복인, 온건파를 남인이라 했다. 이와 같이 불안한 정국이 계속되자 야인들은 1583년과 1587년 두 차례에 걸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5년 후인 1592년(선조 25) 4월 13일 오후 5시에 국내의 무방비상태에 있는 틈을 타서 왜군 20만명이 쳐들어와 5월 2일에 수도를 점령하고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하였다. 명나라의 도움으로 소강상태에 있다가 1597년 재침하였으나 도요토미 사망으로 6년 7개월간의 전쟁은 막을 내렸다. 당시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었으며, 많은 문화재들이 소실되고 약탈당하였다. 이와 같이 그가 집권하는 동안은 정치적인 분당과 학문적인 분파,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으로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암울한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선조는 자신의 수양과 국가발전을 위해 어떻게 독서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다만 필자가 선조조의 사가독서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의 독서토론과정과 읽은 책 등을 일정별로 언급한 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그 동안 밝혀진 선조의

독서행태를 토대로 정확한 검증과 함께 그의 독서력을 밝혀보고자 한다.

2. 宣祖의 經筵制度

명종과 인순왕후 심씨 사이에 태어난 순희세자 李暉(1551-1563)은 7세에 세자로 책봉(1557년, 명종 12)되었으나 13세(1563년, 명종 18)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 후 명종은 1565년(명종 20)에 신병 때문에 중종의 여섯째 비인 창빈안씨의 소생 덕흥군 이초의 셋째아들 하성군을 후계자로 낙점하였다. 1567년 7월 명종이 승하하자 당시 16세인 하성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선조는 다른 왕에 비해서 세자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는 못했다. 즉, 장기간 서연을 실시하지 못하여 독서력이 역대 왕들에 비해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모든 관제를 정비하고 경연을 준비하였다. 경연의 담당 부서는 홍문관으로 소속 관원들이 날마다 당번을 정하여 예습과 복습을 반복한 뒤 선조와 독서토론할 때 질문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초기에 선조와 함께 독서할 경연관은 기대승, 이황, 유희춘, 노수신 등이었다. 이들 중 이황은 즉위년(1567) 7월에 禮曹判書 兼同知經筵春秋館事로 임명되어 기대승 등과 독서토론을 담당하였다. 동년 10월 12일에는 을사년(1545)에 귀양간 유희춘과 노수신 등을 방면하고, 그들을 경연관으로 임명하였다.

경연의 구분은 전 왕조처럼 조강, 주장, 석강 등 3강으로 하여 규칙적인 독서계획을 세웠다. 그 밖에 별도로 야대를 마련하여 문신들과 자유롭게 독서하고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경연장소로는 즉위년에는 세자의 서연장소인 비현각, 창경궁의 내에 있는 사정전, 문정전, 文華殿, 宣政殿, 야대청 등 다양한 장소에서 번갈아 가며 경연을 실시하였다. 사정전은 왕의 집무실인데 경연장소로도 사용하였으며, 문정전은 문관들의 회의장소로 이용된 곳이며, 문화전, 선정전은 왕의 便殿(집무실)으로 여기에서 가끔 경연을 열기도 하였다. 야대청은 석강 및 소대시에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이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경연장소는 모두 소실되

었다. 왜란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피난지 의주에서 돌아온 뒤부터는 정릉동 행궁의 별전(광해군 때 慶運宮으로 개칭, 순종 때 덕수궁으로 개칭)에서 경연을 실시하였다. 경연장소의 배석은 3정승 및 참찬관, 검토관, 경연관 등이 입시하여 독서토론이 끝난 후에는 정책토론을 하여 국정에 반영하기도 한다. 그곳에는 그날의 독서토론내용과 정책토론의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사관이 배석하는데, 불의한 사고로 사관이 없을 경우는 취소되거나 연기되기도 한다. 선조가 경연석상에서 앉는 방향은 서쪽 벽을 등지고 동향하였다.

독서 시간을 보면, 조강은 묘시(진시), 주강은 오시, 석강은 신시에 실시하였다(미시에서 신시로 변경). 그러나 겨울철에는 조강을 진시에 한 경우도 있으며, 독서토론이나 정책결정이 늦어지면 묘시(06)에 시작한 조강은 사시(09-11), 오시(11-13)에 실시된 경연의 경우 술시(밤7-9)에 파한 경우도 있다.

독서할 과목은 四書五經 및 歷史書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선정은 홍문관과 임금이 논의하여 정하게 된다. 초기에는 보편적으로 왕의 독서력을 파악한 다음 경연관들이 선정해서 올린다.

독서방법은 6년까지는 경연관이 大文과 傳注를 읽고 난 다음 선조가 다시 읽었다. 7년 5월부터는 선조의 독서수준이 깊어졌다하여 大文만 풀이하고 傳注는 생략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선조조의 경연제도는 전 왕조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으나 형식에 그치거나 소홀했던 점이 아주 두드러졌다. 다음은 그의 독서일정에 따른 독서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3. 讀書日程 및 行態

선조는 경연제도에 따라 홍문관에서 발탁한 경연관들과 독서를 시작하였다. 선조가 처음으로 독서한 책은 즉위년(1567)에는 「예기」와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예기」는 관례적으로 선왕이 승하하면 애도하기 위해 읽어야 하는 의무독서였고 「대학」은 그 동안 선조의 독서력을 파악한 뒤 선정된 책이었다. 「예기」와 「대학」

은 주자학의 대가 기대승(1527-1572)과 이황(1501-1570)이 담당하였다.

즉위년(1567) 10월 5일 기대승과 「예기」를 강독하면서 상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독서 후 기대승은 「예기」의 내용을 쉽게 풀이한 黃幹의 「儀禮經傳通解」를 간행하도록 건의하였으며(주자가 저술하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자 그의 문인 황간이 이어서 저술하여 40권으로 완성함), 李俊民의 경우는 이황을 경연관으로 천거하자는 건의를 하였다. 같은 해 11월 3일에는 기대승이 선조와 「대학」을 읽으면서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책을 읽으며 공부하는 것이나 경연에서 글을 토론하는 것 등은 인원수만 채우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¹⁾라고 하여 선조에게 독서하는 태도를 알려 주었다. 다음 날 조강부터는 이황이 참여하여 대학 6장의 마지막 항인 “富潤屋 德潤身, 心廣體胖, 故君子必誠其意”라는 傳文과 주자의 經文까지 읽었다. 당시 이황은 선조에게 본 문장을 설명하면서 「소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조에게 수시로 탐독하도록 하고, 역대 죄를 받은 조광조, 김굉필, 정여창 등의 추증을 건의하였으며,²⁾ 또한 석강에서 「예기」를 강독하는 중에 10월 5일 기대승이 건의한 黃幹의 「儀禮經傳通解」를 간행하도록 재차 건의하였다. 며칠 뒤 이황은 석강에서 「예기」의 <상복사제>를 읽은 후에 선조에게 독서자료의 순위를 제시해 주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 「예기」에 표를 붙여 입계한 것은 상중에는 喪禮가 절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예절의 절차와 度數가 상세하기 때문에 번잡한 곳이 많아서 옛사람도 얼핏 읽으면 깨닫기 어렵다고 했으니 상께서 정신을 쏟고 보시다가 온당하지 못한 곳이 있을 경우 하문하신다면 아래서 강구하여 상달하겠습니다. 대체로 「예기」란 책은 번잡하여 처음 진강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는데, 이미 이것으로 시작했고 또 두세 편 표를 붙여 놓은 곳이 있어 정지하기도 미안하나, 가장 적절한 것은 「소학」입니다. 「예기」 49편 중 「중용」과 「대학」 2편은 程子가 빼내었고, 「중용」과 「대학」 외의 아름다운 말은 모두 「소학」에 있으므로 옛사람들도 먼저 「소학」을 읽고 다음에 「대학」을 읽었습니다만 요즈음 경연에서는 먼저 「대학」을 강하고 있습니다. 本館의 의견은 「소학」을 강하려고 했으나 領事의 생각이 성상의 학문이 점차 고명한 지경에 이르렀고, 또 「소학」은 이미 읽으셨

1) 「宣祖實錄」, 卷1 卽位年 11月 甲寅條. 冊21. p.178.

“心不誠, 則至於讀書·工夫, 不過經筵, 應文備數而已.”

2) 「宣祖實錄」, 卷1 卽位年 11月 4日(乙卯) 冊21. p.179.

다고 해서 이 책을 진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책을 읽으시더라도 「소학」을 또한 때때로 읽으셔야 하겠습니까. 모든 책은 건성으로 읽어서는 상세히 이해할 수가 없고 한 번 두 번 하여 백 번쯤 이른 뒤에야 자세히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른바 ‘옛것을 연구하여 새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대학」은 천하의 이치를 그 안에 포괄한 책이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자는 말하기를 ‘배우는 자를 가르칠 때는 「대학」으로 해야 하는데 배우는 자들이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것은 천하의 도리를 매우 광범위하게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였습니다. 「대학」이란 책을 집에 비유하면 마치 건물과 같은 것으로 「논어」와 「맹자」를 읽어 채워야 합니다. 「대학」을 읽어 먼저 건물의 규모를 알고 여러 책을 읽어 채우게 되면 모든 사리에 통달하게 됩니다. 무릇 독서에는 글자가 긴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옛사람이 ‘글자의 뜻을 통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으니 글자의 뜻에 관해서도 때때로 논란하여야 합니다.”³⁾

이는 선조가 당시 國喪 중이었으므로 상례를 습득하기 위해서 「예기」를 선정하여 읽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대학」을 먼저 읽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소학」을 먼저 읽도록 권장한 것이다. 당시 선조가 「대학」을 선정하여 독서한 것은 「소학」을 이미 읽었다하여 영의정의 권유로 읽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황이 제시한 독서방법과 독서자료의 순위를 보면, 모든 책을 건성으로 보지 말고 상세하게 보고, 한두 번으로 끝내지 말고 「대학」에서 제시한 천하의 이치를 깨달으려면 백 번쯤 읽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또한 독서의 순위로는 먼저 「소학」을 읽고 「대학」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학」은 건물과 같은 것이므로 「논어」·「맹자」를 읽어서 그 안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었다.⁴⁾ 이와 같이 이황은 선조의 독서순

3) 「宣祖實錄」卷1 宣祖 卽位年 11月 丁卯. p.8左.

“李滉進啓曰, 當初以禮記, 付標而入以喪中, 喪禮爲切故也, 但詳於節文度數, 故多有煩亂之處, 古人曰, 乍讀難曉, 自上, 用意覽之, 未穩處下問, 則自下當講究以達, 大抵禮記之書類雜, 不切於初講, 而既已始之, 且數三篇付標之處停之, 亦爲未安, 而最切者, 小學也, 禮記四十九篇, 則程子表出, 而庸學之外嘉言, 則皆在小學, 故古人, 先讀小學, 次讀大學, 令此經筵則先講大學矣, 雖讀他書, 而小學, 亦時時習之可也, 凡書乍讀, 則不能詳曉, 一度二度至於百度然後, 可詳曉也, 此所謂溫故而知新也, 大學乃包天下於度內之書, 故難曉矣. 朱子曰, 教學者以大學, 而學者不能曉得者, 包羅天下道理甚廣, 故如此云, 大學之書, 比之於家, 則如間閣然, 當讀論·孟以充之, 讀大學, 先知間閣, 而讀諸書以充之, 則觸處皆通矣. 凡讀書, 文字不關, 而古人曰, 未有不通於文義, 而能通其意者也, 文義上, 時時論難, 可也.”

4) 당시 이황은 고령으로 활동하기가 곤란할 때였다. 선조 1년 12월에 기대승이 논어를 강하면

서를 정해주고 얼마 후 고령으로 기대승·이담 등에게 경연을 맡기고 물러났다. 기대승은 이황에 이어 선조에게 『대학』을 강하였다. 독서방식은 독서토론 형식이었지만 『대학』을 읽는 방법과 내용을 풀이하면서 임금이 올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식이었다.⁵⁾

기대승이 『대학』의 내용을 선조에게 설명하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권장하였으며, 『대학』 전체의 구성과 내용을 설명하고 선조에게 다음과 같이 독서 방법을 제시하였다.

“讀大學法은 바로 朱子가 門人들에게 제시한 것인데 말이 매우 간요하고 간절합니다. 당초 進講할 때는 語錄이 있고 빈잡할 듯하여 진강하지 않았는데 한가하실 때 때때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을 것입니다. 다만 讀法의 토는 비록 감수하여 校正했어도 간혹 타당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고쳐서 들이려고 했으나 시간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토를 고친 뒤에 때때로 열람하시다가 의심나 시거든 하문하소서. 이렇게 하신 뒤에야 크게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卷帙이 작고 말을 만든 것이 간략하나 천하 국가사를 망라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요령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章句의 輯註를 다 볼 필요는 없고 비록 大註라도 아주 절실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본문을 음미하여 마음속으로 체득함이 가장 좋습니다. 帝王이 학문을 할 때는 기타 雜書는 볼 것이 없고 이들 책만 보신다면 재미없던 곳도 점차 깨달아서 재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⁶⁾

선조의 나이가 어리므로 이황이나 기대승은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떤 책을 읽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친 것으로 보인다. 즉위년의

서 이황에 대한 얘기를 선조에게 들려주면서 시대에 드문 현자로 평가를 하였으며, 이담은 동방의 학문은 선조에 정몽주가 있었고, 권근도 잠시 학문을 하였지만 흠이 있었고, 그 후 김굉필에 이르러 학문이 매우 정당하였고 조광조는 김굉필의 제자로서 역시 범상치 않았는데 이황이 이들을 계승하였으니 범상한 인물로 평가하면서 그를 등용하여 학문을 배우고 治道를 문도록 추천한다(『선조실록』 권2 선조 1년 12월 庚辰). 그러나 그는 노환으로 선조 3년에 생을 마감하고 만다.

5) 『宣祖實錄』卷1 卽位年 12月 己丑條. p.17左.

“大學明德而新民，人主之責也，其次則卿大夫之責也，聖人以民之不善爲憂，欲其皆有以復於善，後世，民不安，而不念其所以安之，況望善其不善者乎，往者年凶，多有道浮，雖有荒政，亦不能救慘悽極矣。今年凶荒，前古所無，山陵甫畢，而天使連來，民之艱苦，不可言也，小臣曾奉使往還義州，黃海平安，農事極荒，頓無所食之物，伏願保民之念，每每存省，勞神焦思，求有以活之也。”

6) 『宣祖實錄』卷1 卽位年 12月 9日(己丑) 冊21. p.183.

독서장소는 丕顯閣이나 思政殿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과목은 「예기」와 「대학」이었고, 경연관 이황, 기대승 등이었다.

재위 1년(1568) 1월 1일부터는 독서자료를 「논어」로 선정하여 이황, 기대승과 <학이편>을 읽었다. 1월 12일에도 조강과 주강에서 <학이편>의 독서는 계속되었으며, 2월 14일에는 노수신(1515-1590)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2월 24일에는 유희춘(1513-1577)을 응교로 삼아 경연에 참석할 빌미를 주었다. 같은 해 3월 25일 조강에서는 사정전에서 「논어」 <爲政篇>을, 석강에서는 「소학」을 기대승과 함께 읽었다. 4월 3일에도 석강에 기대승과 「소학」을 6월 9일에는 「논어」 <公治長篇> 19절 季文子, 20절 甯武子장을 유희춘과 강독하였다.⁷⁾ 6월 13일에는 주강과 석강시간을 너무 촉박하다 하여 未時에 했던 것을 申時로 늦추었다. 7월까지 계속해서 유희춘과 「논어」를 읽고, 8월부터는 다시 이황이 관여하였다. 8월 1일에는 <述而篇> 16절의 내용 “子曰 假我數年, 卒以學易, 可以無大過矣(하늘이 나에게 몇 년의 수명을 빌려주어 마침내 주역을 배우게 한다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라는 대목을 토론하였다.⁸⁾ 동년 8월 6일에는 홍문관에서 「논어」 4책을 완독하였다 하여 그믐까지 조강과 주강을 정지하고 복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 승정원에서 조강과 주강을 전폐하면 대신과의 소통이 끊어진다 하여 간간히 조강을 열도록 하였다.⁹⁾ 9월 6일 석강에서는 이황이 필사한 「소학」 <사물잡>으로 강독하였으며, 10월 1일에는 「소학」 읽기가 끝나면 宋의 張橫渠(1020-1077)가 지은 <西銘>¹⁰⁾을 읽도록 추천하였다. 12월 2일, 19일에는 주강과 야대에 문정

7) 「宣祖實錄」 卷2 1年 6月 9日(丁亥) 冊21. p.195.

8) 「宣修實錄」 卷2 1年 8月 1日(戊寅) 冊25. p.412.

9) 「宣祖實錄」 卷2 1年 8月 7日(甲申) 冊21. p.197.

10) 西銘: 乾稱父, 坤稱母, 予茲藐焉, 乃混然中處, 故天地之塞, 吾其體, 天地之帥, 吾其性, 民吾同胞, 物吾與也, 大君者吾父母宗子, 其大臣宗子之家相也, 尊高年所以長其長, 慈孤弱所以幼吾幼, 聖其合德, 賢其秀者也, 凡天下疲癯殘疾惻獨鰥寡, 皆吾兄弟之顛連而無告者也, 于時保之, 子之翼也, 樂且不憂, 純乎孝者也, 違曰悖德, 害仁曰賊, 濟惡者不才, 其踐形惟肖者也, 知化則善述其事, 窮神則善繼其志, 不愧屋淚爲無忝, 存心養性, 爲匪懈, 惡旨酒, 崇伯子之顧養, 育英才 穎封人之錫類, 不弛勞而底豫, 舜其功也, 無所逃而待烹, 申生其恭也, 體其受而歸全者參乎, 勇於從而順令者伯奇也, 富貴福澤, 將以厚吾之生也, 貧賤憂戚, 庸玉汝於成也, 存吾順事, 沒吾寧也.

전에서 기대승과 「논어」 <先進篇>을 읽었다. <선진편>을 강독하면서 기대승은 왕에게 스승을 잘 섬겨야 한다는 얘기 중 이황의 대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하였다.

“신이 判府事 李滉을 보건대, 이와 같은 사람은 지금 시대에 드물 것입니다. 상계서도 그러한 내용을 아시고 매우 융숭한 대우를 하시자 대소 신료들이 상계서 현자를 높이는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어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대체로 그는 나이가 많은데다 병이 깊어 출사하지 못하여 전에 오랫동안 외지에 있었고 이제 잠깐 출사하고 있으나 몸에 또 병을 지녔습니다. 상계서 그에 대한 대우가 이미 극진하셨더라도 禮貌로만 대할 것이 아니고 성상의 마음에 항상 현자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셔야 합니다.”¹¹⁾

이는 기대승이 이황을 대할 때 형식이 아닌 마음속 깊이 현자로 생각하라고 권유한 내용이다. 재위 1년의 독서장소는 思政殿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과목은 「논어」와 「소학」이었으며, 경연관은 이황, 기대승, 유희춘, 노수신 등이었다.

선조 2년(1569) 1월 16일의 석강은 야대청에서 奇大升과 함께 「近思錄」을 읽기 시작하였다. 선조는 동년 3월 4일 야대청으로 이황을 불러 정치 및 학문하는 방법 등을 듣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선조: 학문하는 사람 중에 아될 만한 자가 있지 않은가? 어려워하지 말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황: 그 일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이 지금 어디 한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程子에게 물기를 ‘門人들 중에 누가 학문의 道를 얻었는가?’ 하자, 정자는 ‘얻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游酢, 楊時, 謝良佐, 張繹, 李籲, 尹焞 등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얻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더구나 신이 군상을 기만하면서까지 아무개가 얻은 바가 있다고 아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奇大升이 文字를 많이 보았고 理學에도 조예가 가장 높으니 通儒입니다. 다만 그는 收斂工夫가 부족한 것이 미진한 점인데 소신이 평상시에 이 점을 부족하게 여겨서 좀 더 공부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자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조: 이 말은 지당하다. 나로서는 그 萬分의 일인들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평상시 그가 문장을 잘 짓는다고 여겼다.

이황: 그의 문장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¹²⁾

11) 「宣祖實錄」卷2 1年 12月 6日(庚辰) 冊21. p.199.

본 대답은 선조가 학문에 뛰어난 자를 추천의뢰하자 이황이 기대승을 추천한 내용이다. 기대승은 이황의 문인으로 선조초기에 선조에게 많은 학문을 가르친 인물이다. 선조 2년 4월 1일 선조는 기대승과 「論語」 <憲問> 23章 ‘子路問事君, 子曰 勿欺也而犯之’부분을 읽었다. 당시 기대승은 “四書의 小註나 「性理大全」의 편질들이 先儒의 定論과는 틀린 점이 많으니, 한 번 훑어만 본 다음에는 大文과 大註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도 만년에 그리하셨으니 그것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하여 독서의 방법을 제시하였다.¹²⁾ 4월 5일까지 문정전에서 기대승과 함께 「논어」 <憲問篇>, 4월 19일에는 <衛靈公篇>을 읽었다. <憲問篇>은 총 47장, <衛靈公篇>은 41장인데 4월 1일부터 19일까지라면 상당히 독서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5월 1일에는 석강의 장소를 文華殿으로 하였다. 5월 21일 조강은 문정전에서 <衛靈公篇>을 읽었으며, 석강에서는 「近思錄」을 강독하였다. 6월 4일에는 「논어」 <季氏篇>을 기대승과 읽었으며, 6월 20일 석강에서 기대승, 윤근수 등과 「近思錄」 제2권을 강하면서 독서할 때 멀리해야 할 책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당시 선조에게 멀리하도록 제시한 책은 「三國志衍義」·「楚漢衍義」·「剪燈新話」·「太平廣記」·「史記」, 薛文淸의 「讀書錄」, 程復心の 「四書章圖」, 陳建의 「皇明通記」·「心統性情圖」·「西銘心學圖」 등이다. 이들의 책을 인출하려고 하자 經筵官들이 반대의사를 표현하였다. 「三國志衍義」는 「楚漢衍義」와 같은 책으로 무뢰한 자가 잡된 말을 모아 고담처럼 만들어 놓았으니 압박하고 무익하여 의리를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이며, 「太平廣記」는 심지를 오도하는 책이므로 경계해야 하며, 「史記」는 事迹이 분명하지 않고, 「剪燈新話」는 놀라우리만큼 저속하고 외설적이라는 평을 하고 있다. 薛文淸의 「讀書錄」은 성정을 읊은 글이기는 하나 과장되고 잡란하므로 임금은 읽지 않는 것이 좋고 이미 인출하고 있으니 배우는 자가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尹根壽도 설문청에 대해 평하기를 天順年間(1457-1464)에 입각한 사람으로 거취가 매우 바르고 진정 학문에 종사한 사람이었지만 정주학만은 못하다는

12) 「宣祖實錄」 卷3 2年 3月 4日(戊申) 冊21. p.203.

13) 「宣修實錄」 卷3 2年 4月 1日(甲戌) 冊25. p.415.

평을 하고 있다. 『四書章圖』 역시 설문청이 파쇄하다 하여 학문하는 자에게 의심을 갖게 하며, 『皇明通記』는 역사를 저술할 때는 한 나라의 終始를 보고 저술해야 하는데 이 책은 한 때의 건문을 가지고 만들었으므로 선택에 고려해야 한다는 평이다. 기대승은 정복심의 『四書章圖』는 당판 1권이 있는데 인출하려고 하는 『四書章圖』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인출하려고 하는 『四書章圖』는 증보한 것이며, 『心統性情圖』·『西銘心學圖』도 정복심의 저술인데 『心統性情圖』의 경우 李滉이 中圖와 下圖가 온당치 않은 곳이 있어서 수정하였고, 『西銘心學圖』도 이황이 수정하여 저술하였지만 태극을 논한 곳에 근본이 잘못된 곳이 있어서 배우는 자가 오도할까 염려되어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책이니 인출불가론을 제시하였다.¹⁴⁾ 이와 같이 기대승과 윤근수가 임금이 독서자료 선택에 대해서 상세하게 평가한 것을 보면, 그들의 내면에는 正史가 아니면 읽지 말고 詞華나 외설을 다룬 책들도 멀리 하도록 하면서 정주학분야의 서적을 읽도록 권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조는 그 해 5월, 6월 한참 무더운 날씨인데도 독서를 계속하였다. 당시 홍문관에서 날씨가 너무 덥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중지하자는 건의가 있었지만 자신에게 아무 질병이 없으니 계속해서 실시하자고¹⁵⁾ 할 정도로 『논어』 강독에 열성적이었다. 물론 대왕대비가 편찮을 때는 경연을 파하기도 했지만 거의 날마다 조강, 주장, 석강을 열어 독서를 하였다. 윤6월 6일, 7일부터, 24일까지 계속해서 『논어』 <陽貨篇>을 기대승과 강독하였다. <陽貨篇>은 모두 26장인데 독서의 속도는 그리 빠르지는 않았다. 드디어 7월 28일에 이르러 『논어』를 완독하였다. 홍문관에서는 완독은 했으나 철저하게 다시 숙독하도록 하고 숙독하는 동안 조강을 하지 말고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시로 부르도록 하였다.¹⁶⁾ 선조는 『논어』의 강독을 마친 후 복습을 하기 위해 며칠간 조강을 중지하였다. 그 해 8월 이이(1536-1584)를 경연관에 배정하여 『孟子』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 때

14) 『宣祖實錄』卷3 宣祖 2年 6月 壬辰條. p.24左.

15) 『宣祖實錄』卷2 宣祖 元1年 6月 庚寅(12日)條. p.18右.

16) 『宣祖實錄』卷3 宣祖 2年 7月 己亥(28日)條. p.37左.

“弘文館啓曰, 論語今已畢進講, 當徹上徹下熟讀, 限熟讀間, 勿爲朝講, 日數多寡, 自上斟酌宜當, 若有疑處, 不時召對何如, 傳曰知道.”

율곡의 나이 33세였다. 동 2년 9월 25일에는 이이가 <동호문답>¹⁷⁾을 저술하여 올리자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재위 2년의 독서장소는 문정전, 문화전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과목은 「논어」와 「근사록」, 「맹자」였으며, 경연관은 기대승, 윤근수, 이이 등이었다.

선조 3년(1570)부터는 「孟子」와 「大學或問」을 유희춘이 담당하였다.

동 3년 7월 17일 주장에 선조는 柳希春과 「大學或問」의 格物致知章을 강하면서 「大學或問」이 성립된 배경을 설명하고, 도의를 밝게 하는 책으로 8종(四書, 小學, 近思錄, 大學衍義, 通鑑綱目)을 선정하였다. 당시 선조가 六經과 四書의 차이를 묻자 유희춘은 “「周易」은 주로 복서에 관한 것이고, 「書經」은 제왕의 訓誥와 誓命을 기재하였으며, 「春秋」는 여러 나라의 선악을 기록하였고, 「詩經」은 사람의 성정을 읊었고, 「예기」는 예절을 기록한 글이니 모두 제왕이 후세에 전한 법입니다. 그러나 도리의 정미한 곡절은 四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주자도 여러 번 말하였습니다.”¹⁸⁾라고 四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12월 1일에는 副提學 柳希春에게 “李彥迪의 문집은 내가 이미 보았으나, 金宏弼·鄭汝昌·趙光祖는 모두 불세출의 현자들인데 남긴 저술이 어찌 없겠는가. 경은 나를 위하여 찬집하여 올리도록 하라.”하여, 유희춘이 玉堂의 동료들과 함께 자료를 모아 「伊洛淵源錄」을 모방하여 한 책으로 만든 다음 「國朝儒先錄」으로 이름하고 도승지 李後白에게 서문을 쓰도록 하여 校書局에서 간행하도록 하였다.¹⁹⁾

「孟子」를 완독한 선조는 선조 4년(1571)에도 유희춘과 함께 「中庸」을 강독하였다. 그 해 「中庸」을 마치고 5년(1572)부터 「書經」을 읽었다. 5년 10월 19일에는 12시 30분에 주장을 유희춘과 「書經」의 ‘帝庸作歌章’을, 12월 16일 주장에는 <禹貢篇>을, 12월 19일 주장에서는 ‘九河既道’를 읽었다. 6년 6월 21일에는 李珣가 直提學으로 임명되어 「書經」을 강독하였다. 이이가 강독하는 도중 선조의 목소리가 좋지 않으므로 그 원인이 여색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으로 의심하였다. 선조는

17) 「東湖問答」이란 책은 李珣가 독서당에서 月製를 계기로 임금의 학문하는 방법과 정치하는 도리를 문답체로 엮은 것이다.

18) 「宣祖實錄」卷4 宣祖 3年 7月 癸未(17日)條. p.18하

19) 「宣修實錄」卷4 3年 12月 1日(甲午). 冊25. p.426.

사람의 목소리가 각기 다르고 원래 타고난 것인데 왜 의심하는지 모르겠다고 변명하기도 하였다.²⁰⁾ 계속해서 유희춘은 선조 7년(1574)까지 선조의 강독을 담당하였으며, 그 후 朴淳, 김우옹 등이 담당하였다.²¹⁾ 당시 선조는 유희춘이 책을 많이 보고 학술이 정통하고 상세하다 하여 그의 강독과 해석만 따를 정도로 누구보다 더 신임하였다. 선조 4년에 朴應南(1527-1572), 盧守愼과 더불어 <天文圖>를 하사받았으며,²²⁾ 다른 경연관이 이설을 제기하여도 선조는 “유희춘이 經籍을 널리 보아 학술이 정밀하고 자상하니 따르지 않을 수 없다.”할 정도로 유희춘 외에 다른 경연관의 설을 믿지 않았다.²³⁾

당시 유희춘과의 문장 해석의 예를 보면, 선조 4년 12월 3일 주장이 있었는데 참여한 자는 승지 李忠綽, 교리 鄭淹, 수찬 李友直, 특진관 朴永俊, 유희춘 등이었다. 강독관이 『중용』 13장 <或問>을 강독하는데, 선조는 ‘固’자의 해석을 ‘本來’라고 하고 ‘則’자를 해석하여 하면(爲面)이라 하였다. 이는 모두 전일 유희춘의 해석을 따른 것이었다. 또 유희춘과의 대화에,

유희춘: 전일 12장 혹문에서 ‘정자가 맹자의 “반드시 선을 축적하되 마음에 미리 그 효과를 기필하지는 말라.”는 곳을 인용하였는데 성현께서 특별히 학자들이 힘을 너무 지나치게 써서 도리어 누를 만드는 것을 염려하여 아래 구절로 해석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한 성현은 정자를 가리킨 것이요, 맹자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선 조: 그 말이 진실로 옳다. 전일 나도 잘못 알고 맹자라고 생각했었다.²⁴⁾

이와 같이 선조는 유희춘이 옳다 하면 무조건 수용하였다. 유희춘으로 인해 독서에 흥미가 가중되었는지도 모른다. 유희춘과 선조와의 관계된 내용을 보면, 선조는 초기부터 경연이 어느 정도 잘 실시되었다. 그러나 7년 이후부터는 형식적이 되고 말았다. 그 원인은 확실치 않지만 선조는 어렸을 때부터 脾胃가 좋지

20) 『宣祖實錄』 卷7 6年 9月 21日(戊戌) 冊21. p.272.

21) 선조 4년에 朴淳의 건의로 校書館에 명하여 『朱子語類』를 간행하도록 함(『宣祖實錄』 卷5 宣祖 4年 11月 庚申).

22) 『宣祖實錄』 卷5 宣祖 4年 11月 辛酉條. p.7右.

23) 『宣祖實錄』 卷5 4年 11月 5日(癸亥) 冊21. p.237.

24) 『宣祖實錄』 卷5 4年 12月 3日(辛卯) 冊21. p.238.

않았다. 때문에 날마다 약물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유희춘이 독서토론 중에 조리서인 「延壽書」, 「壽親養老書」, 「山居四要」, 「名醫雜著」, 「事林廣記」 등을 참고하여 병의 원인을 설명하는 내용에 ‘비위는 음식으로 생기기도 하고 독서의 과로로 생기며, 기거의 절도가 없을 때 생깁니다.’²⁵⁾는 내용으로 선조의 병을 진단하기도 하였다. 이 내용에서 선조는 독서의 과로까지 겹칠 정도로 독서에 열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선조는 병약하다는 이유로 경서를 읽을 때 大文만을 읽고 傳注는 읽지 않았다. 당시 유희춘이 선조의 독서방법에 대해 말한 내용을 보면, “지금 鄭宗榮(1513-1589)에게 듣건대 상께서 경서를 읽으실 때 단지 대문만 풀면 되고 수고롭게 전주까지 풀 것은 없다고 했고, 노수신도 하는 말이 ‘마땅히 경연에서 읽는 양을 줄이고 대신 대화하고 의논을 해야 한다.’ 하였기에 신이 생각해 보건대 대개 옥음이 이러하시니 진강하는 장수를 줄여야 합니다. 傳注의 해석은 성학이 이미 투철하시니 풀이하시는 것이 또한 자못 수고롭습니다. 단지 대문만 풀이하고 전주는 풀이하지 않더라도 어찌 해롭겠습니까.”²⁶⁾라고 하여 대문만 읽도록 권하고 있다. 이는 선조의 건강을 헤아려 신하된 도리로 청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며칠 후 유희춘은 전주도 중요하다는 뜻을 전달한다. 이들이 선조 7년(1574) 5월 30일 조강에서 <微子篇>을 읽고 독서토론했던 과정을 보면,

노수신: 사람은 마땅히 存心에만 힘쓸 것이요 문자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經書의 훈고는 이미 그 뜻을 알았으면 문자는 잊어 버려도 됩니다. 진실로 문자만 가슴속에 머물러 두고 있으면 결국 해가 있게 됩니다. 또한 上古에 어찌 글자가 있었겠습니까. 단지 서로 말하며 마음에 간직했을 뿐입니다.

유희춘: 그렇지 않습니다. 朱子가 ‘이 마음을 維持해 가는 것은 오직 글이다.’ 했으니, 문득 糟粕이라고 지적하여 무시하고 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요는 마음으로 증험해 보고 몸으로 체험해 보아야만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만일 駁雜하고 올바르지 못한 글이라면 진실로 볼 것이 없겠지만, 성현들의 經訓을 어찌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주자가 ‘학문하는 사람은 傳註를 떨쳐 버려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전주도 오히려 버릴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경훈이겠습니까.

25) 『宣祖實錄』 卷8 7年 5月 癸巳(20日 癸). p.34下右.

26) 『宣祖實錄』 卷8 宣祖 7年 癸巳. p.35左.

노수신: 전주는 마음에 꼭 두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유희춘: 諸家の 注 중에 성현들의 뜻을 터득하지 못한 것은 생략해도 되겠지만, 주자의 四書三經의 注와 같이 성인들의 마음을 미묘하게 터득한 것은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노수신: 아무리 좋은 주도 또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유희춘: 사람들이 만일 자기와 다른 말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면 누구도 감히 할말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의논이 이미 이러하니 오직 성상께서 절충하시기에 달렸습니다.

선 조: 비록 存心을 위주로 하지만, 그러나 글을 이미 읽었다면 어찌 잊어서야 되겠는가. 중요한 것은 때때로 익히며 생각하고 演繹하여 心神과 서로 합해지게 해야 하는 것이다. 어찌 볼 필요가 없다고 여겨서야 되겠는가.

韓脩, 洪進, 朴啓賢 등: 讀書와 窮理는 빠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박계현: 공자는 『주역』을 읽어 가족 끈으로 엮은 곳이 세 차례나 끊어졌었고, 또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글을 어찌 사소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²⁷⁾

이들의 대화내용을 보면 글을 읽고 마음에 세기면 글자는 잊어도 된다는 노수신의 생각과 글과 같이 기억하고 傳注까지 읽어야 된다는 유희춘의 주장이다. 논란이 깊어지자 선조에게 절충하라는 것으로 끝을 맺은 것이다. 몇 개월 후인 동년 10월 10일 『書經』의 <홍범>을 강하고 나가려던 차에 유희춘에게 선조가 말하길,

“무릇 글 속의 吐釋을 혹자들은 소소한 일이어서 꼭 留意할 것까지는 없다고 하지만 성현들의 하신 말씀이 ‘글 뜻을 알지 못하고서 精微한 내용을 통할 수 있는 자는 없다.’ 하였다. 지금 四書와 經書의 口訣과 諺釋을 경이 정하지 않은

27) 『宣祖實錄』 卷8 7年 5月 癸卯(30日). p.38右左.

“(前略)盧守愼曰, 人當只務存心文字, 不濟事, 至如經訓, 既解其意, 則文字可忘, 苟有留滯於胸中, 卽爲有害, 且上古那有文字, 只相言語存諸心而已, 希春曰, 不然, 朱子曰所以維持此心者, 只有書耳, 謂可遞指爲糟粕, 而?鞿不觀乎, 要在以心驗之, 以身體之而已, 若駁雜不正之書, 則固不足觀, 聖賢經訓, 豈可忘乎, 朱子曰, 學者不可擺落傳註, 傳註猶不可棄, 況經訓乎, 守愼曰, 傳註不必留心也, 希春曰, 諸家之註, 不得聖賢之意略之猶可, 至如朱子四書三經註, 妙得聖人之心, 豈可輕乎. 守愼曰, 雖善註, 亦不足觀也. 希春人若不喜異同之說, 則人不敢畢陳其說, 今論議既如此, 惟在聖上之折衷耳. 上曰, 雖以存心爲主, 然書既讀, 豈可遺忘, 要在時習思繹, 今與心神相合, 豈可以爲不足觀也. 韓脩·洪進·朴啓賢等, 皆以爲觀書窮理, 不可闕. 啓賢曰, 孔子三絕韋編, 又曰, 溫故而知新, 則可以爲師矣. 書豈可少哉.”

것이 없으니 경의 학문이 정밀하고 해박함은 세상에 드문 일이다. 四書와 五經의 구결 및 언석을 경이 모두 자상하게 정해 놓았으니, 하나의 局을 설치할 만하다. 혹 경학을 강론할 관원을 뽑고 싶다면 7인이 있으니, 경이 알아서 가리라.” 하였다. 유희춘이 아뢰기를, “이 일은 꼭 국을 설치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마땅히 정밀하고 명석한 사람들만 공동으로 의논하여 정하면 됩니다. 다만 신은 지금 한창 『朱子大全』을 교정하고 있어 다른 것에 미칠 틈이 없습니다. 신은 매우 빈약한 데다가 또한 몹시 노쇠했으니 내년엔 『朱子大全』 印出을 끝내면 그해 가을에는 시골로 돌아가서 쉬도록 해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 그렇게는 안 된다.” 하였다.²⁸⁾

이와 같이 선조는 유희춘의 학문적인 바탕과 업적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장한 토석, 구결 등도 독서하는 데 있어서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²⁹⁾ 선조는 계속해서 유희춘과 『서경』을 읽었다. 선조 7년 6월 24일 석강에서는 『대학연의』 <狡童刺忽也>를 읽었다. 동년 12월 1일에 유희춘의 추천으로 석강뿐만 아니라 야대에도 『대학연의』를 읽어야 한다 하여 받아들였다. 동년 11월 5일에는 조강에 노수신, 김우옹과 <洪範>을 토론하면서 조헌이 올린 『질정록』을 보고 설문청의 문집을 간행토록 하였다. 그의 문집에는 『독서록』, 『행실록』 등이 있다. 더불어 南軒의 문집도 간행토록 하였다.³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선조 2년(1569)에 기대승이 설문청의 『독서록』을 읽지 않도록 권장하였지만 설문청의 학문자세가 올라라 하여 여러 문신들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선조 8년(1575) 6월 24일에는 특별히 金宇顒(1540-1603)과 李珥, 鄭彥智(1520-?) 등을 소대하여 『尙書』 <康誥篇>을 토론하는 중 선조는 李珥에게 항상 읽고 있는 책과 가장 좋아하는 책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그 내용을 보면,

28) 『宣祖實錄』 卷8 宣祖 7年 10月 辛亥(10日), p.56左.

“上曰, 凡文字吐釋之間, 或者以爲小事不必留意, 然聖賢有言, 未有不得於文義, 而能通其精微者, 今四書·經書口訣及釋, 卿皆詳定, 亦可以設局, 或欲取經學講論之員, 有七, 惟卿所擇. 希春曰, 此事不必設局, 只當與精明之人, 通議而定之, 但臣今方校正<朱子大全>, 無暇及他, 臣孱弱之甚, 衰老亦至, 明年<朱子大全>畢印出, 其乞歸田里而爲之. 上曰, 吁! 此則不可.”

29) 유희춘은 선조 9년(1576) 10월에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내려갔으나 다음 해인 선조 10년 5월 1일에 사망하였다.

30) 『宣祖實錄』 卷8 宣祖 7年 11月 乙亥, p.60左.

상이 이이에게 이르기를, “항상 어떤 책을 읽으며 또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슨 책인가?” 하니, 이이가 답하기를, “學業을 익힐 때 읽은 것은 읽지 않은 것과 같고, 학문에 뜻을 둔 뒤로는 『小學』부터 시작하여 『大學』·『論語』·『孟子』까지는 읽었으나, 아직 『中庸』은 읽지 못하였습니다. 다 읽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 보아도 분명히 理會가 되지 않으므로 六經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四書 중에서 어떤 글을 가장 좋아하는가?”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그렇다고 특별히 하나만을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가에 『近思錄』·『心經』 등의 글을 읽고 있으나 질병과 公務 때문에 전념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시 때 문장을 익힌 적이 있는가? 그대의 文詞를 보건대 매우 좋으니, 배운 적이 있는가?”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신은 소시에서부터 문사를 배운 적은 없습니다. 소시에는 禪學을 자못 좋아하여 여러 經을 두루 보았으나 着實한 곳이 없음을 깨닫고 儒學으로 돌아와서 우리 유학의 글에서 그 착실한 이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문장을 위하여 읽은 것이 아니었으며, 지금 문장을 짓는데 대략 文理가 이루어진 것도 역시 별도로 공부를 한 일은 없고, 다만 일찍이 『韓文』·『古文眞寶』와 『詩經』·『書經』의 大文을 읽었을 뿐입니다.” 하였다.³¹⁾

위의 내용에서 선조가 『小學』을 세자시절에 읽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李珥의 독서순서와 비교해 볼 때 독서과정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선조의 독서는 다른 역대 제왕들처럼 꾸준히 계속된 것은 아니었다. 몸의 병약한 이유도 있었지만 세월이 가면서 그의 독서 횟수는 감소되어 가고 있었다.

선조의 독서 방법을 보면 문자중심 독서방법과 비평적인 독서방법을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근거로, 선조 9년(1576) 2월 15일에 朴淳(1523-1589)과 『書經』의 <召誥>를 강하면서 ‘하늘에 있는 사람의 정신이 하늘과 하나가 되었다.’는 설에 대해 명백하게 말하라고 질문하자 박순은

“만약 너무 깊게 따져가면서 본다면 怪異한 병통이 생기게 될까 우려됩니다.”

31) 『宣祖實錄』 9卷 宣祖 8年 6月 丁卯(24日). p.26左.

“上, 謂珥曰, 常讀何書, 所最喜者何書乎. 對曰, 習學業時所讀, 見猶不讀也, 向學之後, 從小學讀來, 以至大學·論·孟, 猶未及中庸, 終而復始, 尙未能通會, 故不及於六經矣. 上曰, 四書中最喜何書乎. 珥曰, 亦無不好, 別無偏喜, 餘暇, 亦讀近思·心經等書, 但疾病公務之故, 多不能專矣. 上曰, 小時, 嘗習文章否, 觀爾文詞甚乎, 亦嘗學否. 珥曰, 臣自少未嘗學文詞, 少時頗好禪學, 泛觀諸經, 覺得無着寬處, 反以求之吾儒之書, 亦非爲文章而讀, 今爲文詞, 粗成文理者, 亦別無用工之由, 但嘗讀韓文古文眞寶及詩書大文而已.”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독서를 함에 있어서는 文字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없어야만 알기 어려운 의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따지지 않고 건성으로 보아 넘기는 것이 학자들의 병통인 것이다.” 하였다. 김우옹이 아뢰기를, “이런 곳을 이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平易한 데에서부터 精微한 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니, 바로 배움에 있어 등급을 뛰어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학문은 의리를 밝혀 그것을 실행하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 궁구하여 文義가 명백해진 뒤에야 의리에 밝아 몸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깊이 궁구하여 의리를 밝히는 것은 본디 실행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문자의 뜻만 깨달아 아는 것이라면 한 글자도 틀림없이 經書를 다 통달하였더라도 이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³²⁾

이 기록은 『書經』을 읽고 박순과 김우옹 등과 함께 토론을 벌이는 내용으로 독서방법 중 ‘따지면서 읽기 방식’에 대해서 논한 것으로 보인다. 선조는 ‘文字中心說’을 주장하면서 따지면서 깊이 있는 독서를 주장했으며, 박순과 김우옹 등은 ‘文意中心說’을 주장하면서 실천위주의 독서를 제시한 것이다. 당시 선조의 나이 25세, 박순 53세, 김우옹 36세이다. 독서방법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문장의 의미를 질문한 과정에서, 박순이나 김우옹은 문장의 의미를 밝히는 목적을 실천에 두었지만, 선조는 학자들이 문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보아 넘기는 것을 질책한 의미에서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조는 당시까지 각 책의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는 수준이었다. 9년(1576) 9월 9일 조강에서 책의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질문한 바 있다.

선 조: 經書 중 『書經』과 『詩經』의 내용도 이와 비슷한가.

경연관: 『서경』에는 帝王의 일이 기재되어 있으니 진실로 정치를 하는 大法이고, 『시경』은 인정에 근본하고 物理가 갖추어져 있으니 관계되는 바가 더욱 절실합니다.

32) 『宣祖實錄』 卷10 宣祖 9年 2月 己卯. p.1左.

“(前略)若看得太深, 恐生怪異底病痛也. 上曰, 讀書須是無不曉底文字, 乃可尋義理於其所難知處, 便籠罩過, 此是學者之病, 字顯曰, 此等處, 非不當理會也, 只當先自平易處, 入精微處, 乃學不躐等之意也, 且學問, 只欲明義理而躬行之也, 講究深繹, 文義明白然後, 義理明, 可以體之於身而行之也, 然則尋究講明, 本欲行之而已, 若曉會文字, 雖盡通經書, 不錯一字, 何益之有(略).”

선 조: 「서경」은 내용이 까다롭고 쉽지 않은데 「시경」의 내용도 이와 비슷한가.
경연관: 「시경」은 文辭가 매우 쉬우면서도 명백하여 사람에게 이익됨이 있습니다.
선 조: 「시경」, 「서경」을 「論語」, 「孟子」와 견주어보면 어떠한가?
경연관: 「논어」, 「맹자」는 「시경」, 「서경」보다 더 절실합니다. 朱子가 「논어」, 「맹자」는 익힌 밥과 같고 「시경」, 「서경」은 벼를 타작하여 밥을 짓는 것과 같다.’ 하였는데, 학문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四書가 제일 긴요한 것이고 「시경」, 「서경」이 그 다음이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綱目」이 제일 긴요한 것이고 「大學衍義」가 그 다음입니다.³³⁾

선조는 「서경」을 읽으면서 「시경」의 내용이 궁금했거나 아니면 각 책에 대한 경중을 알고 싶었던 의도도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0년(1577)부터는 노수신 등이 선조의 독서를 담당하였다. 5월 3일부터는 「書經」 <君牙篇>을 읽기 시작하였으나 길게 가지 못하였다. 11년에도 거의 독서를 하지 못했으며, 당시 「시경」을 읽고 있었는데 홍문관에서 「시경」은 곧 絃歌의 가사라서 지금은 服中에 계시므로 進講하기가 어려우므로 「春秋」를 진강하고 「시경」의 진강은 우선 정지하도록 했으나 허락하지 않다가 결국은 「春秋」로 결정하였다.³⁴⁾ 이듬해인 12년에는 「春秋」를 김우옹 등과 조강에서 강독했을 뿐 석강과 야대는 생략하였다. 13, 14년에도 조강과 주강에서는 「春秋」 석강에서는 「大學衍義」를 간간히 읽었으나, 주강은 없었다. 15년(1582)에는 조강, 주강, 석강, 야대가 거의 없었다. 15년 4월 21일 석강을 실시하려 했으나 석강에 참여하려던 金繼輝(1526-1582)가 갑자기 죽자 중단하였다. 동년 6월 1일 선조는 「綱目」을 읽고 싶어 「綱目」에 능통한 사람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당시 이이가 선조의 명을 받아 李恒福(1556-1618), 李德馨(1561-1613), 吳億齡(1552-1618), 李廷立(1556-1595), 李嶸을 선발하자, 선조는 각자에게 內府에 비장해 두었던 「綱目」을 하사하고 또 다섯 신하에게 吏文·漢語·試謝 등 모든 隸習을 그만두고 文事만을 전념하게 하였다. 그런데 얼마되지 않아 추천받은 이영이 痘疫으로 죽자, 「綱目」을 이영의 아들에게 주고, 鄭昌衍을 대신하게 하였다.³⁵⁾ 석강과 야대에 「大學衍義」 다음

33) 「宣祖實錄」卷10 9年 9月 9日(戊戌) 冊21. p.343.

34) 「宣祖實錄」卷12 11年 3月 9日(庚申) 冊21. p.351.

책으로 『綱目』이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선정만 했지 독서는 거의 하지 못했다. 선조 16년(1583)에는 조강, 주강, 석강 모두 실시하지 않았으며, 17년에는 3월과 5월에 한두 번 실시하였으며, 18년에는 1월 1일 조강, 2월 20일 석강에 『綱目』, <哀帝紀>, 3월 1일 석강 『綱目』 <漢紀>, 4월 16일 미시 정각에 宣政殿에서 석강, 4월 28일 주강, 6월 16일 조강, 9월 14일 조강을 하고 멈추었으며, 선조 19년(1586)에는 조강, 주강, 석강, 야대 모두 실시하지 않았다. 상당히 많은 기간을 독서하지 않고 이듬해가 되어 1, 2번 실시하고 그만두었다.

20년(1588) 1월 3일에 야대에서 參贊官 黃暹, 侍讀官 洪麟祥, 檢討官 趙仁得, 記事官 鄭期遠이 입사하여 『通鑑綱目』의 <東漢獻帝紀>를, 1월 8일 야대에서는 參贊官 李誠中, 侍讀官 吳億齡, 檢討官 盧稷, 記事官 尹澗 등이 입사하여 『通鑑綱目』을 읽은 것이 전부다.

21년(1589) 윤6월 8일 申時 초에 문정전에서 『通鑑綱目』 <蜀漢後主記>의 ‘建興元年’에서 ‘立皇后張氏’까지 읽었다. 이듬해인 22년(1590) 8월 1일 석강에서 『通鑑綱目』 ‘冬始月’부터 ‘鍾會를 司徒로 삼았다.’는 부분을 읽은 뒤 북변과 왜적의 대비에 대해서 논하였다. 그 후부터 거의 독서하는 일이 없었다. 선조 23년(1590), 24년(1591), 25년(1592)에는 조강, 주강, 석강, 야대 등이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일본군이 선조 25년 4월 14일 부산을 거쳐 쳐들어 왔으며, 4월 30일 선조는 피난의 길을 걸어야 했다. 25년 12월 19일 난리 중인데도 사간원에서는 경연을 열어 독서하도록 권장하였다. 당시는 불안한 형국이라 선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독서를 구실로 문신들을 만나게 되면 임금의 덕의 성취는 물론 국가의 재난에서 회복될 수 있는 묘책이 강구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선조는 건강상의 이유로 회피하였다.³⁵⁾ 그래도 독서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27년(1594) 1월 9일 대사헌 심희수 등이 10가지 조항의 상소를 올리면서 경연에서의 독서를 권장하였으나³⁷⁾ 독서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동년 5월 30일, 7월 9일 계속해서 경연에서의 독서를 주장하였다. 난리 중에도, 환도한 후에도 독서를 하지 않자

35) 『宣修實錄』 卷16 15年 6月 1日(丁亥) 冊25. p.505.

36) 『宣祖實錄』 卷33 25年 12月 19日(乙巳) 冊21. p.590.

37) 『宣祖實錄』 卷47 27年 1月 9日(戊子) 冊22. p.203.

옥당의 경연관들도 자리만 채우고 놓고 있다는 것이다.³⁸⁾ 계속해서 사헌부에서 경연을 열도록 권고하자 선조 27년 10월 18일 승낙하였다. 10월 20일에는 홍문관과 경연에서 읽을 책에 대해 논의하도록 했다. 선조는 평소 조강과 주장에서는 「시경」을 읽고, 석강에서는 「강목」을 읽었으나 영사 유성룡은 「강목」의 경우 권수가 많고 읽기 쉽지 않으므로 「唐鑑」을 권장하고 「시경」을 계속 읽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선조가 당시 국내 상황으로 보아 시를 읽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였다. 선조 본인은 조강에는 「주역」과 석강에는 「동국통감」이나 「고려사절요」를 읽고 싶어 했다.³⁹⁾ 다음날 홍문관에서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주역」은 人事의 길흉과 悔吝에 참고하면 향하는 바에 미혹됨이 없게 될 것이므로, 고명하신 상의 聖學으로 이를 읽어 깊이 아시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일이라 하여 읽도록 했으며, 「동국통감」은 서거정의 작품으로 단군이하부터는 황망한 내용이므로 읽지 말고 「고려사절요」를 석강에서 읽도록 권고하자 선조가 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홍문관에서는 「고려사절요」가 홍문관에 보관하고 있는 책이 한 건밖에 없는데다가 편차가 많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海州史庫에 소장된 4-5건을 가져다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주역」은 홍문관에 2-3건이 보존되어 있지만 전질이 아닌 과본이며, 급히 손질하여 정리한다 해도 조강에는 12건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있는 것은 겨우 10분의 2~3이니, 모양이 되지 않을 것이고, 外方의 난리를 겪지 않은 곳의 鄕校나 書院, 또는 민가에 반드시 소장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니, 각도에 하유하여 모아서 올려 보내도록 하자고 건의하였다. 이에 선조는

“「東國史」를 사고에다 소장해 둔 것은 숨은 뜻이 있어서일 것이다. 「고려사절요」와 다른 「東國史」를 兩湖에 下書하여 널리 구해서 올려 보내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도 얻지 못하면 그때 가서 사고에 소장된 것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될 것이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서적은 「東國史」와 「輿地勝覽」, 「東文選」, 「續東文選」 등인데 玉堂에 있는가? 이 밖에도 모든 동국의 文籍에 관계된 것은 아울러 兩湖의 監司에게 하서하여 널리 구해서 즉시 올려 보내도록 하고, 올린 자에게는 論賞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⁴⁰⁾

38) 「宣祖實錄」, 卷51 27年 5月 30日(丁未) 冊22. p.287. ; 「宣祖實錄」, 卷53 27年 7月 9日(乙酉) 冊22. p.309.

39) 「宣祖實錄」, 卷56 27年 10月 20日(甲子) 冊22. p.380.

선조가 오랜만에 독서하겠다고 홍문관에 알렸는데 홍문관에서는 독서할 수 있는 책을 준비하지 못했다. 독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홍문관에서는 모든 책을 수집해서 경연에 대비하고 있어야 할 임무인데도 오래도록 폐강했기 때문이라 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⁴¹⁾ 며칠 후 동년 10월 29일 오시에 별전으로 나아가 여러 신하들을 불러 정사를 논했으나 경연은 열지 못하였다. 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사실 전쟁으로 인해 도성에 있는 도서관들이 모두 불타 책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⁴²⁾ 선조는 책이 부족하면 영사(유성룡)와 지사 몇 사람만 참여해서 실시하자고 하였다.⁴³⁾ 27년(1594) 11월 5일 오시에 편전으로 관리들을 불러 왜침의 대책에 대해 논의한 후 독서할 책으로 다음과 같이 『주역』으로 결정하고 함께할 인물과 주역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정경세: 經筵을 열라는 명이 내렸으나 옥문관에 서책이 없어서 근근히 수습하여 이제 비로소 한 책을 얻었습니다. 외방에도 『주역』을 아는 자가 있을 것이니, 그를 올라오게 하소서.

선 조: 영사의 생각은 어떠한가? 朝官과 儒士 중에 만일 『주역』을 아는 자가 있으면 특별히 골라서 입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유성룡: 매우 좋은 일입니다.

선 조: 伏羲 이후에 여러 성인을 거쳤건만, 周나라에 이르러서 비로소 『주역』을 지은 것이 무엇 때문인가?

유성룡: 삼대에 다 『주역』이 있었는데, 文王은 象을, 周公은 爻를, 孔子는 文言 · 設卦 · 大象을, 程子是 傳을, 朱子是 本義를 지었습니다.⁴⁴⁾

40) 『宣祖實錄』 卷56 27年 10月 21日(乙丑) 冊22. p.385.

41) 『宣祖實錄』 卷56 27年 10月 24日(戊辰) 冊22. p.385.

42) 실록에 “도성의 宮省에 불이 났다. 왕의 가마가 떠나려 할 즈음 도성 안의 간악한 백성이 먼저 內帑庫에 들어가 寶物을 다투어 가졌는데, 이윽고 가마가 떠나자 亂民이 크게 일어나 먼저 掌隸院과 刑曹을 불태웠으니 이는 두 곳의 관서에 公私奴婢의 文籍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궁성의 창고를 크게 노략하고 불을 질러 흔적을 없었다. 景福宮, 昌德宮, 昌慶宮의 세 궁궐이 일시에 모두 타버렸는데, 창경궁은 바로 順懷世子嬪의 찬궁이 있는 곳이었다. 역대의 寶玩과 文武樓, 홍문관에 간직해 둔 書籍, 춘추관의 各朝實錄, 다른 창고에 보관된 前朝의 史草(高麗史를 수찬할 때의 草稿이다.), 『承政院日記』가 모두 남김없이 타버렸고 내외 창고와 각 관서에 보관된 것도 모두 도둑을 맞아 먼저 불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선조가 경연에서 읽어야 할 책이 한 권도 없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일 경인조).

43) 『宣祖實錄』 卷56 27年 10月 29日(癸酉) 冊22. p.387.

44) 『宣祖實錄』 卷57 27年 11月 5日(己卯) 冊22. p.390.

이와 같이 독서할 책을 『주역』으로 결정한 뒤 『주역』에 능통한 자를 추천하라 하였다. 동년 11월 12일 辰時(07-09)에 별전으로 나아가 참찬관 金功, 검토관 鄭經世, 지사 鄭琢, 특진관 정곤수, 우의정 김응남 등과 주역에 대한 독서토론을 같이 한 뒤 정철의 관직추탈과, 이순신과 원균문제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당시 『주역』에 능통한 자를 추천한 내용을 보면,

- 선 조: 연소한 문사 중에 역학을 아는 자는 누구인가?
- 김응남: 그런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임시한 鄭經世가 가장 역학을 잘 알고, 또 禹廷琛은 『주역』을 정밀하게 읽었다 하는데, 지금 扶餘縣監으로 있습니다.
- 정경세: 소신은 역학을 전혀 모르는데 대신이 이처럼 그릇 계달하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신은 들으니, 서울 朝官 중에 韓百謙이란 자가 있는데 꽤 역학을 안다고 합니다.
- 선 조: 韓浚謙의 형인가? 하니(모두가 그렇다고 하였다)
- 김 수: 백겸과 준겸은 바로 韓孝胤의 아들입니다. 그 집안은 본래 학문에 힘쓰기로 이름이 났습니다.
- 정 탁: 한준겸(이때 原州牧使로 재직)도 역시 학문에 열중하는 선비입니다.
- 김응남: 한준겸과 그의 숙부인 韓孝純도 다 역학을 안다고 말들 합니다.

당시 사신은 전쟁 중에 선조의 독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하들의 학문이 어둡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였다.⁴⁵⁾ 선조 27년(1594) 11월 16일 『주역』으로 독서를 시작했으며, 이듬해(1595) 1월 6일, 1월 8일 계속해서 <건괘>를 읽고 주역에 대해 잘 알지도 모르는 정경세, 신식, 한효순, 이항복 등과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사실 사신은 『주역』에 대한 지식이 徐敬德(1489-1546) 이후로 끊겼으며, 鄭經世(1563-1633)가 좀 알고는 있으나 응답에만 그친다 하였다.⁴⁶⁾ 『주역』을 강독한 중에 28년 3월 3일 석강에서 읽을 책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선조는 예전부터 『고려사절요』를 읽고 싶어 했다. 또 그렇게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그런데 홍문관에서는 『고려사절요』가 경연관이 강독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권질마저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하여 다른 책으로 교체하자 하였다. 홍문관에서 다시 의논하여 치도에 유익한 내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삼대육선공의 『주의』를 추천하였다.

45) 『宣祖實錄』 卷57 27年 11月 12日(丙戌) 冊22. p.395.

46) 『宣祖實錄』 卷59 28年 1月 8日(辛巳) 冊22. p.416.

이에 선조는 고려사는 우리나라 역사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몰라서야 되겠는가 하고 자책하면서 성종도 「고려사」를 독서한 예가 있는 것을 알려주기까지 하였다.⁴⁷⁾ 이는 당시 홍문관의 역할이 너무나 소홀했다고 볼 수 있으며, 자료선택에 있어서도 수집하려는 의도도 없으며, 형식적인 독서토론에 임했음을 보여 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한동안 경연은 열지 못하였다. 28년 5월 21일에 사간원이 경연을 계속하도록 건의 하여 동년 6월 10일 오시 정각에 별전에서 「주역」을 읽었으나 그 후 3개월 이상 독서를 중단하다가 9월 17일에 별전에서 정경세와 함께하였다. 동 9월 20일에는 정경세와 김시현에게 「주역」을 강독한 근로상으로 兒馬 1필, 馬粧 각 1부씩을 하사하였다.⁴⁸⁾ 그 후에도 「주역」 독서는 계속되었다. 28년 12월 28일 진시 정각(07시)에 조강에 참여하여 독서를 마친 다음에 金弘微가 조강과 주강에 「주역」을 읽고 있으므로 석강과 아대에 「續綱目」을 읽도록 건의하였으나 선조는 게을러서 읽지 못한다 하였다.⁴⁹⁾ 몇 개월 후 선조 29년(1596) 3월 25일 「주역」을 읽고 나서 경연관의 숫자가 적으니 이조가 찾아서 임명하라 하였다. 그러나 당시 홍문관 소속 경연관들은 편하게 놀고먹는 형국이였다. 경연이 자주 열려야 경연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일 터인데 예습, 복습도 없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주역」에 능통한 자가 없어 김응남에게 영남에 가서 축성을 담당하고 있는 鄭經世와 金時獻을 불러오도록 부탁하기도 하였다.⁵⁰⁾ 경연관은 부족하고, 있는 경연관은 실력이 부족해서 질문에 응대하지 못한다다가 선조는 잔병이 많아 독서의 지속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동년 6월 18일 선조는 가슴앓이란 병 때문에 독서를 하지 못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전일에 읽었던 내용을 다시 읽고 마치자고 하였으나 유성룡, 지사 홍진, 시강관 김시현, (柳熙緒), 특진관 이증, 검토관 이심 등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⁵¹⁾ 당시는 통신사, 군량, 염철사업 등의 논의가 계속된 시점이었다. 11월 1일 시강관 권협과 蠱卦의 ‘六四

47) 「宣祖實錄」, 卷61 28年 3月 3日(丙子) 冊22. p.458.

48) 「宣祖實錄」, 卷67 28年 9月 20日(己丑) 冊22. p.558.

49) 「宣祖實錄」, 卷70 28年 12月 28日(丙寅) 冊22. p.618.

50) 「宣祖實錄」, 卷73 29年 3月 25日(壬辰) 冊22. p.665.

51) 「宣祖實錄」, 卷76 29年 6月 18日(甲寅) 冊23. p.13.

는 아버지의 고를 너그럽게 함이니[裕父之蠱]부터 ‘법칙으로 삼을 만하다.[可爲法則也]까지를 읽고, 전에 受講한 것을 읽고 풀이하였다.⁵²⁾ 11월 7일에는 수강한 것을 다시 읽고 臨卦의 ‘臨序卦有事而後’부터 ‘君子宜知所戒’까지 시독관 韓浚謙과 같이 하였다.

선조 30년(1597) 2, 18일, 5월 29일 아침에 『주역』 강독은 했으나 주장, 석강, 야대는 없었다. 이후 1년이 넘도록 경연에서의 독서활동은 중단되었다. 31년(1598) 5월 21일 홍문관 부제학 吳億齡, 응교 申欽, 교리 李尙信 등은 경연에서의 독서활동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건의하였다.

“전하께서 작년 가을부터 經筵에 나가시는 일을 중단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1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장수들이 계속해서 오고 軍機가 번잡한데다가 그들을 접대하고 수작하시는 일로 경연에 힘쓰실 여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經幄을 설치한 것은 문장을 해석하고 글의 의미를 강론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깊은 뜻을 연구하고 고급의 일을 헤아려 마음으로 터득하여 사업에 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인을 방문하고 학문을 토론하는 것은 모두 나의 본심을 바르게 하여 정치하는 바탕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생략)”⁵³⁾

위의 건의에 대한 선조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내용은 좋으나 중국장수 접대 등으로 몸이 피곤하여 건강돌보기도 힘든데 한가하게 경연에 앉아서 독서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계속적인 경연의 부재로 경연관들도 나태해지기 시작하였다. 근무태만과 결근, 교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인사 이동시킨 경우도 있었다.⁵⁴⁾ 경연중단으로 군국대사를 문서로만 하고 긴급한 명령도 내관을 통해 전달되므로 변방의 방비는 점차 소홀해지고 신하들은 날마다 다투고 지방의 수령들은 백성들을 침탈하는 행위들이 지속되었다. 이는 3년 이상 경연을 비우면서 소통부재에서 오는 결과라는 것을 사신들은 기록하고 있다.⁵⁵⁾ 32년 9월 21일, 10월 9일 홍문관, 승정원 등에서 경연에서의 독서를 건의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52) 『宣祖實錄』 卷82 29年 11月 1日(癸巳) 冊23. p.89.

53) 『宣祖實錄』 卷100 31年 5月 21日(乙巳) 冊23. p.440.

54) 『宣祖實錄』 卷111 32年 4月 1日(庚戌) 冊23. p.594.

55) 『宣祖實錄』 卷114 32年 6月 6日(癸未) 冊23. p.628.

거부하였다. 경연을 열지 않아 홍문관 관원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일부는 외방으로 파견되어 홍문관의 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관원들끼리 먹살을 잡고 싸우고 힐난하다 삭탈관작당하는 경우도 있었다(尹弘, 任守正).⁵⁶⁾

전쟁 중이라 경연에서 읽었던 책도 모두 빼앗기거나 훼손되어 완전한 책이 없었다. 선조 33년 지중추부사 李好閔과 서장관 安宗祿이 개인 노자를 털어 『詩經』·『書經』·『易經』·『禮記』·『論語』·『孟子』·『中庸』·『大學』과 『中庸或問』·『大學或問』·『君臣圖鑑』 등 총 75책을 사서 선조에게 올리기도 하였으며, 선조 역시 책이 없음을 알고 중국으로 간 사신에게 구입해 올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⁵⁷⁾

선조는 경연에 나아가 다시 책을 읽으려고 책을 준비하고 경연관들을 충원하도록 하였다. 충원된 인원은 총 31명이었다. 홍문록을 본 선조는 인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감원조치를 내렸다. 선조는 세월이 가면서 점점 독서의욕은 상실되고 있는 차에 많은 수의 경연관을 선발한 것은 이들의 명예를 고려한 듯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⁵⁸⁾ 경연관들의 실력이나 근무태도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경연관들은 경연에 나가기 전 미리 예습을 하여 왕의 질문에 대비해야 하는데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일고 있는 책만 가지고 진도만 나가려고 하는 자세들이었으며,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다 답변도 못하는 경향이 많았다.⁵⁹⁾ 그 이전의 토론에서도 그 자세가 나타났던 것이다. 재위 33년(1600) 10월에 독서할 책으로 『주역』을 설정하고, 34년(1601)부터 그 동안 중지된 경연을 열어 申欽 등과 함께 읽기 시작하였다. 동년 3월 17일에 선조는 『주역』을 읽으면서 독서에 관련된 소견을 각자 말하라고 하였다. 그 때 이항복은 『주역』에 대해서는 글 뜻도 모른다 하였으며, 김수 역시 『춘추』와 『주역』은 전연 모른다 하였다.⁶⁰⁾ 당시 모든 경연관

56) 『宣祖實錄』 卷125 33年 5月 21日(癸亥) 冊24. p.73.

57) 『宣祖實錄』 卷126 33年 6月 7日(戊寅) 冊24. p.76.

58) 『宣祖實錄』 卷128 33年 8月 10日(庚辰) 冊24. p.110.

“弘文錄: 崔沂, 李綏祿, 趙守翼, 成晉善, 李弘胄, 趙翊, 崔尙重, 朴東善, 閔有慶, 李光胤, 尹賜, 李顯英, 金尙憲, 吳允謙, 李志完, 洪命元, 李綏, 金尙窩, 金正男, 洪瑞鳳, 權盼, 李信元, 宋錫慶, 宋英耆, 陸長欽, 黃克中, 李壽俊, 趙存性, 姜籊, 金瑬, 金梯男.”

59) 『宣祖實錄』 卷142 34年 10月 26日(癸亥) 冊24. p.309.

이 선조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는 평소에 경연관이 독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틀 뒤인 3월 19일에도 선조가 전에 읽은 부분을 다시 읽고 나서 새로운 범위로 ‘象曰山下有火부터 誰能陵之乎’까지 읽고 시독관 朴東說, 검토관 洪瑞鳳, 영사 金命元, 특진관 成泳 등과 열띤 토론을 실시하였다.⁶¹⁾ 그 후 간간히 주역을 대상으로 토론을 실시하였다. 34년 8월 1일, 8월 19일, 8월 28일, 10월 15일, 10월 25일 시간은 묘시정각에 시작하여 巳時에 종료하였다.

35년(1602) 11월 11일에는 석강과 야대과목으로 홍문관관원들과 상의하여 그동안 완독하지 못한 『강목』을 독서대상으로 선정하였다.⁶²⁾ 그러나 해를 넘겨도 『강목』을 읽지 못했다. 책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이유이다. 그 내용을 보면,

홍문관: 夕講과 夜對에 진강할 책은 『通鑑綱目』으로 이미 아뢰어 定奪하였는데, 서책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외에 있는 곳이 있는가 모두 찾아보았으나 겨우 訓義 2건, 發明 3건, 唐本 1건만을 얻었습니다. 입시하는 관원에 비해 숫자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특진관이나 사관과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돌려가며 侍講할 수 있으며, 차후에도 혹시 더 찾아낼 수가 있으니, 이제 석강과 경연을 아울러 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전에 진강할 때에 어떤 이는 <晉紀>를 다 강하지 못했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晉紀>는 모두 강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입시한 신하들이 모두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강은 唐紀부터 시작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히 아뢰입니다.

선 조: 나도 잊어버렸다. 아무 紀부터 진강하여도 방해롭지 않다.⁶³⁾

위의 내용은 『綱目』을 선조 24년(1591)까지 읽다가 중단하였는데, 12년 후 다시 읽으려 하니 책도 부족하고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아무 편부터 읽으려 했으나 그 후 『綱目』을 읽었다는 기록이 없다. 완독하지 못한 상태에서 18년(1585)부터 조강과 주장에서 읽기 시작한 『詩傳』이란 책도 선조 24년(1591)까지 끌고 갔다. 25년(1592), 26년(1593)은 임진왜란의 원인으로 경연이 한 번도

60) 『宣祖實錄』 卷135 34年 3月 17日(乙卯) 冊24. p.214.

61) 『宣祖實錄』 卷135 34年 3月 19日(丁巳) 冊24. p.219.

62) 『宣祖實錄』 卷156 35年 11月 11日(戊辰) 冊24. p.426.

63) 『宣祖實錄』 卷158 36年 1月 30日(丁亥) 冊24. p.444.

없었으며, 임진왜란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27년(1594)부터 『주역』으로 독서를 시작하였다. 『주역』에 관심이 많은 선조는 경연관들과 토론하면 시간가는 줄 몰랐다. 그러나 34년(1601) 10월부터 거의 말 수가 적어졌으며, 경연관들도 형식적이었다. 진강할 모든 책에 대해 미리 내용을 연구하여 질문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한 책만 가지고 진강하는 도구로 삼아 대략 익혀 읽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선조는 조강에 『주역』한 권을 40년(1607) 2월 19일까지 읽다가 41년(1608) 2월 1일 57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주역』을 27년(1594) 11월부터 시작하여 40년(1607)까지 읽었으니 만 13년 동안 『주역』을 가지고 조강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역대 제왕 중에 가장 『주역』을 많이 읽고 열면 토론을 주선한 왕이다. 선조가 이처럼 『주역』을 탐독한 이유는 『주역』의 힘으로 적으로부터 자신과 백성은 물론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선조 자신이 재위기간에 읽었던 책은 『禮記』, 『大學』, 『論語』, 『小學』, 『近思錄』, 『孟子』, 『大學或問』, 『中庸』, 『書經』, 『大學衍義』, 『春秋』, 『通鑑綱目』, 『詩傳』, 『周易』 등이다.

경연관으로는 이황, 기대승, 윤근수, 이이, 유희춘, 김귀영, 유성룡, 노수신, 박순, 김우옹, 김수, 이국, 최황, 류영립, 이성중, 오억령, 오직, 윤형, 변협, 김응남, 최황, 신희, 홍서봉, 이항복, 윤근수, 이회득, 이덕형, 이홍로, 유영경, 유근, 박홍로, 남근, 성이문, 유간, 박진원, 민덕남, 박안현, 이홍망, 임장, 이현 등이다.

4. 讀書回數 및 讀書沮害要因

4.1 讀書回數

선조가 조강, 주장, 석강, 야대에 실시한 독서의 횟수를 분석하여 독서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表 1>에 나타난 통계는 조선왕조실록 상에 기록된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한 것이다.

<表 1> 宣祖의 讀書 年表

在位 年度	西紀	朝講	晝講	夕講	夜對	總 回數	科目	經筵官
即位年	1567	3	1	3	4	11	禮記, 大學	奇大升·李滉, 이준민
1	1568	24	23	35	11	93	論語, 小學	奇大升·李滉·柳希春
2	1569	11	2	5	4	22	近思錄·論語·孟子	奇大升·李珥
3	1570	4	9	7	3	23	孟子·大學或問	柳希春
4	1571	1	3	*	1	5	中庸	柳希春·柳濤
5	1572	2	3	*	7	12	書經	柳希春
6	1573	36	14	*	13	63	書經	柳希春
7	1574	33	22	5	33	93	書經, 大學衍義	柳希春·盧守愼·金字顯
8	1575	1	1	1	7	10	書經	金字顯·李珥
9	1576	9	1	*	3	13	書經	朴淳·金字顯
10	1577	2	*	*	*	2	書經	金字顯
11	1578	2	*	*	*	2	書經, 春秋	金字顯
12	1579	5	1	*	2	8	春秋	金字顯
13	1580	6	1	9	1	17	春秋·大學衍義	
14	1581	6	*	1	5	12	春秋·大學衍義	李珥
15	1582	*	*	1	*	1	綱目	李恒福, 李德馨 등
16	1583	*	*	*	*	*	*	
17	1584	3	*	*	*	3	綱目	
18	1585	3	1	2	3	9	詩傳·綱目	金字顯
19	1586	*	*	*	*	*	*	
20	1587	1	*	1	*	2	詩傳·綱目	
21	1588	*	*	2	3	5	詩傳·綱目	李誠中·吳億齡
22	1589	3	*	6	*	9	詩傳·綱目	邊協
23	1590	*	*	*	*	*	*	
24	1591	*	*	2	*	2	詩傳·綱目	
25	1592	*	*	*	*	*	*	
26	1593	*	*	*	*	*	*	
27	1594	2	*	*	3	5	周易	金功·鄭經世·崔瓘
28	1595	3	8	1	2	14	周易	申湜·鄭經世·金時獻
29	1596	8	5	1	1	15	周易	申礪·金弘微·韓浚謙
30	1597	4	*	*	1	5	周易	權快
31	1598	*	*	*	*	*	*	
32	1599	*	*	*	*	*	*	
33	1600	*	*	*	*	*	*	
34	1601	5	*	*	1	6	周易	成晋善·尹義立

在位 年度	西紀	朝講	晝講	夕講	夜對	總 回數	科目	經筵官
35	1602	2	*	*	1	3	周易	李德馨·朴弘老
36	1603	5	*	2	1	8	周易	李德澗
37	1604	*	*	*	*	*	*	
38	1605	4	*	*	*	4	周易	柳永慶·柳根·朴震元
39	1606	2	*	*	*	2	周易	許箴·李惟弘
40	1607	1	*	*	*	2	周易	
41	1608	*	*	*	*	*	*	
총 횃수		194	95	84	110	483		

4.1.1 朝講

선조는 재위 41년 동안 조강을 실시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연도별로 조강 횃수를 보면, 즉위년 6회, 1년 24회, 2년 11회, 3년 4회, 4년 1회, 5년 2회, 6년 36회, 7년 33회, 8년 1회, 9년 9회, 10년 2회, 11년 2회, 12년 5회, 13년 6회, 14년 6회, 15년 0회, 16년 0회, 17년 3회, 18년 3회, 19년 0회, 20년 1회, 21년 0회, 22년 3회, 23년 0회, 24년 0회, 25년 0회, 26년 0회, 27년 2회, 28년 3회, 29년 8회, 30년 4회, 31년 0회, 32년 0회, 33년 0회, 34년 5회, 35년 2회, 36년 5회, 37년 0회, 38년 4회, 39년 2회, 40년 1회, 41년 0회 등 총 194회이다. 이중 가장 많은 독서를 했다고 하는 시기는 선조 1년 24회, 6년(1573) 36회, 7년 33회가 가장 많은 독서수치이고 나머지 재위년은 10회 이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는 흥문관의 활동이나 선조의 독서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나타내 주고 있다. 조강에서는 문신들을 만나 독서하고 내용을 토론한 뒤 어제의 국사를 보고받고 그날그날의 정사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선조는 전 제왕들에 비하여 아침 독서를 하지도 않고 문신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으니 정사는 물론 개인의 인성개발은 물론 치국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독서를 저해한 가장 큰 이유는 16세에 왕위에 오르고 왕후는 2명, 빈은 6명에 아들 14명, 딸 11명 총 25명을 두었다. 색을 가까이하고 잔병에 시달리다 보면 만사가 싫어진 모양이

다. 또한 국가적으로 두 번의 전쟁까지 겪으면서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시간을 보낸 이유이기도 하다.

4.1.2 晝講

주강은 조강 때의 내용을 복습한 경우가 많았다. 선조의 주강은 즉위년 1회, 1년 23회, 2년 2회, 3년 9회, 4년 3회, 5년 3회, 6년 14회, 7년 22회, 8년 1회, 9년 1회, 10년 0회, 11년 0회, 12년 1회, 13년 1회, 14년 0회, 15년 0회, 16년 0회, 17년 0회, 18년 1회, 19년 0회, 20년 0회, 21년 0회, 22년 0회, 23년 0회, 24년 0회, 25년 0회, 26년 0회, 27년 0회, 28년 8회, 29년 5회, 30년 0회, 31년 0회, 32년 0회, 33년 0회, 34년 0회, 35년 0회, 36년 0회, 37년 0회, 38년 0회, 39년 0회, 40년 0회, 41년 0회 등 총 95회이다. 선조 8년부터는 낮에 독서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한 해에 1, 2회 정도이거나 한 번도 실시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쟁 중에 주역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주강의 횟수가 선조 28년(1595) 8회, 선조 29년 5회로 선조 7년 22회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다. 그 뒤부터는 거의 낮에 독서했다는 근거가 없다.

4.1.3 夕講

석강은 조강과 주강과는 달리 별도의 책을 선정하여 읽고 토론하는 자리이다. 선조의 석강 횟수를 보면, 즉위년 3회, 1년 35회, 2년 5회, 3년 7회, 4년 0회, 5년 0회, 6년 0회, 7년 5회, 8년 1회, 9년 0회, 10년 0회, 11년 0회, 12년 0회, 13년 9회, 14년 1회, 15년 1회, 16년 0회, 17년 0회, 18년 2회, 19년 0회, 20년 1회, 21년 2회, 22년 6회, 23년 0회, 24년 2회, 25년 0회, 26년 0회, 27년 0회, 28년 1회, 29년 1회, 30년 0회, 31년 0회, 32년 0회, 33년 0회, 34년 0회, 35년 0회, 36년 2회, 37년 0회, 38년 0회, 39년 0회, 40년 0회, 41년 0회 등 총 84회이다. 이는 주강과 석강이 비슷한 수치로 석강 역시 거의 실시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4.1.4 夜對

야대는 읽은 책에 대해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문신을 불러 해결하는 자리이다. 야대 횃수를 보면, 즉위년 4회, 1년 11회, 2년 4회, 3년 3회, 4년 1회, 5년 7회, 6년 13회, 7년 33회, 8년 7회, 9년 3회, 10년 0회, 11년 0회, 12년 2회, 13년 1회, 14년 5회, 15년 0회, 16년 0회, 17년 0회, 18년 3회, 19년 0회, 20년 0회, 21년 3회, 22년 0회, 23년 0회, 24년 0회, 25년 0회, 26년 0회, 27년 3회, 28년 2회, 29년 1회, 30년 1회, 31년 0회, 32년 0회, 33년 0회, 34년 1회, 35년 1회, 36년 1회, 37년 0회, 38년 0회, 39년 0회, 40년 0회, 41년 0회 등 총 110회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선조가 경연에서 실시한 3강과 야대의 총 횃수를 재위년도별로 보면, 즉위년 14회, 1년 93회, 2년 22회, 3년 23회, 4년 5회, 5년 12회, 6년 63회, 7년 93회, 8년 10회, 9년 13회, 10년 2회, 11년 2회, 12년 8회, 13년 17회, 14년 12회, 15년 1회, 16년 0회, 17년 3회, 18년 7회, 19년 0회, 20년 2회, 21년 5회, 22년 9회, 23년 0회, 24년 2회, 25년 0회, 26년 0회, 27년 5회, 28년 14회, 29년 15회, 30년 5회, 31년 0회, 32년 0회, 33년 0회, 34년 6회, 35년 3회, 36년 8회, 37년 0회, 38년 4회, 39년 2회, 40년 2회, 41년 0회 등 조강 194회, 주강 95회, 석강 84회, 야대 110회 총 483회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독서 횃수를 보면 선조 1년과 6년, 7년에만 독서의욕이 약간 높았으나 그 외에는 아주 저조한 횃수로 나타났다.

책을 읽은 기간들을 보면, 四書에 해당되는 책은 1-2년 내에 완독, 『書經』은 5년(1572)부터 11년(1578)까지, 『春秋』는 11년부터 14년(1581)까지, 『綱目』은 15년부터 24년(1591)까지 석강에서 읽다가 중단하였다. 『詩傳』은 18년부터 24년까지 조강과 주강에서 읽었으나 완독하지 못했다. 27년부터 『周易』을 죽을 때까지 읽었다. 따라서 선조가 재위시 읽었던 책은 조강과 주강에서 『禮記』, 『大學』, 『論語』, 『孟子』, 『中庸』, 『書經』, 『春秋』, 『詩傳』, 『周易』 등이었으며, 석강과 야대에서는 『小學』, 『近思錄』, 『大學或問』, 『大學衍義』, 『綱目』 등으로 총 14종이다.

결과적으로 독서 횃수로나 책의 종수로 판단한다면 선조의 독서력은 역대 제왕

들에 비해 아주 저조함을 알 수 있다.

4.2 讀書姿勢와 沮害要因

선조는 16세에 등극하여 하루에 3, 4회 열심히 독서하고 정사에 열중하려 했으나 지나친 당파싸움, 야인들의 침략,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으로 국가는 피폐해지고 설상가상으로 가뭄까지 들어 흉년의 연속이었다. 선조 자신에게는 잔병이 많아 약으로 살다시피 하였다. 그러면서도 왕후와 빈은 모두 8명이나 들였고 1600년에 의인왕후 박씨가 죽자 2년 후 김제남의 딸(당시 19세)에게 다시 장가를 들어 세인들의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1606년 영창대군을 낳고 1608년 59세로 눈을 감는다.

선조가 16세부터 59세까지 어떤 요인으로 독서에 치중하지 못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위년에는 모든 제도를 정비하느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 해는 명종비 인순왕후 심씨가 수렴청정했던 시기였으므로 독서할 시간은 있었을 것이다. 선조 1년부터는 본인이 직접 국정을 담당한 관계로 독서에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매년 한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기후관계로 독서는 정지되었다. 즉 방학인 셈이다. 그러나 선조는 매일 방학과 다름없이 독서를 거의 하지 않았다. 재위 5년 사헌부에서는 ‘국가의 기강은 무너지고 백성의 인심은 점차적으로 나빠지고 있는데, 왕은 글을 읽어 심신단련과 현실적인 부분에는 소홀하고, 박식함을 자랑하여 신하들 앞에서 변론을 잘하는 등 잘난척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으며, 문자 속의 어려운 것을 찾아내어 문신들을 곤경에 빠지도록 시험하는 버릇이 있으며, 나만이 옳다는 주장과 생각이 점차 방종해져 간다.’는 내용으로 강력하게 간언한 바가 있었다.⁶⁴⁾ 이 사실은 말년으로 가면서 독서토론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선조 6년(1573) 3월 17일에는 경연에서 낭낭한 목소리로 글을 읽어 경연관들이 기뻐했다는 기록이 있다.⁶⁵⁾ 이는 평소애 독서자세가 좋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64) 『宣祖實錄』 卷6 5年 10月 29日(壬午) 冊21. p.248.

증명해주고 있다. 같은 해 4월 2일에는 선조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여 尹復(1512-1577)을 차출한 경우도 있었다.⁶⁶⁾ 동년 8월 8일에는 柳濤(1520-1573)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에 독서토론을 준비하고 조강에 들어온 경연관들에게 슬퍼서 독서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 하였다.⁶⁷⁾

선조 7년(1574)에는 재위 1년처럼 독서를 가장 많이 한 해이다. 8년부터는 임진왜란 전까지 독서량이 급속히 하락하였다. 봉당의 소용돌이와 본인의 잦은 병치레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5년(1592) 4월 13일 오후 5시에 일본군이 20여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면서 국난은 깊어져만 같다. 그 동안 별로 독서의 결실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로 인해 독서할 생각이나 기회가 더더욱 없었던 것이다. 5월 2일에는 한양을 빼앗기고, 민가와 궁궐이 불타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다. 선조는 피난길에 올라 평양에 도착하였다. 그 와중에도 홍문관 부제학 洪麟祥, 부응교 尹覃茂, 교리 李尙弘 등은 경연을 열도록 건의하였다.⁶⁸⁾ 경연을 열어 독서도 중요하지만 문신들을 만나 국정을 의논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독서는 심신이 안정되었을 때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자신의 생명은 물론 국가의 존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글을 읽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을 것이다. 6월에 평양을 빼앗기고 다시 의주로 피난하였다. 선조 26년(1593), 27년(1594)에는 명나라의 원병문제, 왕자의 인질문제, 송유진의 난 등으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여유로운 시간도 없었다. 27년에는 「주역」으로 국난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몇 차례 경연을 실시하였으며, 28년(1595), 29년(1596)에는 명나라와 일본군의 화의의 분위기 속에서 다소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서 경연을 열어 「주역」을 읽기도 하였다. 이것도 일부만 읽고 중단하였다. 결국 동년 9월 3일 사간원에서 경연에 나갈 것을 권고 했으나 병이 있다는 구실로 경연을 열지 않았다. 29년 5월 3일은 감기로 인해 조강을 하지 못했다 했다. 30년(1597) 1월 15일에 일본이 15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와

65) 『宣祖實錄』 卷7 6年 3月 17日(丁酉) 冊21. p.259.

66) 『宣祖實錄』 卷7 6年 4月 2日(辛亥) 冊21. p.260.

67) 『宣祖實錄』 卷7 6年 8月 8日(乙卯) 冊21. p.267.

68) 『宣祖實錄』 卷26 25年 5月 10日(己巳) 冊21. p.489.

대치하다 8월에 도요토미가 죽자 11월에 물러가 7년간의 전쟁은 막을 내렸다. 전쟁은 막을 내렸지만 인명피해, 주택 및 농경지파손, 문화재훼손 등 그 후유증은 막대하였다. 당시 선조는 의주에서 한양으로 돌아 왔으나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이 모두 소실되어 거처할 곳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정릉동 행궁의 별전(광해군 때 慶運宮으로 개칭, 순종 때 덕수궁으로 개칭)으로 옮겼다. 그 후 3년간 글을 읽지 않았다. 31년 5월 21일 홍문관에서 경연을 실시하자 했으나 선조는 중국 장수를 酬應하고 접대하는 노고 때문에 몸도 보존하기 어려운데 어느 겨를에 經筵을 베풀겠는가. 이런 시기에 책을 펴놓고 이치를 궁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라고 하여 후일로 미루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글을 읽지 않자 당시 사관이 비판한 글을 보면,

옛날의 제왕들은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 여러 신하들과 함께 經史를 토론하고 정미한 뜻을 연구하여 옛 교훈을 모범으로 삼았으므로 학문이 훌륭하게 발전되고 모르는 사이에 덕이 진보되었다. 따라서 상하의 뜻이 서로 통하고 軍國의 정사가 모두 수거되었으니, 경연이야말로 治道에 긴요한 것으로써 하루라도 폐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았다. 그런데 지금 신하들과 직접 대하는 경연에 3년 동안이나 나아가지 아니하여 대신과 대간 및 시종들이 天顏을 가까이하여 좋은 말을 진술하지 못한 지가 오래이다. 군국 대사를 그저 文簿로 출입하고 긴급한 명령도 언제나 小宦의 口傳에 의지하고 있으니, 群情이 어떻게 서로 돈독할 수 있겠으며 모든 일이 어떻게 폐기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지금 중국군이 장차 철수하려 하니 국사가 매우 어렵고 갖가지 災異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신하들은 그것을 바로잡는 실상이 없다. 변방의 방비가 점차 헤이해지는 틈을 타 섬 오랑캐들은 재침할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도 조정의 신하들은 날마다 서로 다투고 있고 수령들은 거의 모두 백성을 침탈하기만 한다. 위에서 마땅히 自強하고 엄려하여 寸陰을 아껴 보필하는 신하들을 나오게 하여 부지런히 강론한다면, 碩輔와 直臣들이 한곳에 모여 토론할 것이니, 국가에 보탬이 될 만한 忠언과 黨論이 어찌 없겠는가.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히려 경연을 정지하고 아래 신하들을 만나지 않고 있다. 조석으로 친하게 대하는 것은 宮妾에 불과하고 좌우에서 모시는 자들은 모두 내시들일 뿐 구중 궁궐 깊숙이 들어앉아 현신을 한 번도 접견하지 않은 채 상하가 태평하게 목전의 안일만 구차하게 도모할 뿐 세월만 허송하고 있다. 그리하여 나라 일이 쇠미해져 장차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너무도 애석한 일이다.⁶⁹⁾

69) 『宣祖實錄』 卷114 32年 6月 6日(癸未) 冊23. p.628.

윗글의 내용에서 보면 아침부터 밤까지 궁첩만 가까이 하고 그 시중은 내시가 하고, 명령할 것 있으면 문서로 하면서 경연관들을 전혀 만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하들은 국사가 어렵고, 재난이 닥치는데도 바로잡지 못하고, 고을의 수령들은 백성만 침탈하고 있는 당시 상황이었다. 선조가 독서를 구실로 경연관들을 만나 토론도 하면서 국난을 극복해야 하는데 태평세월처럼 허송세월만 보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선조의 독서저해요인은 이러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선조 자신의 마음자세라는 판단이다.

선조 33년(1600)에는 왕비 박씨(의인왕후, 박응순의 딸; 1555-1600)가 세상을 떠나 독서할 정황이 아니었다. 선조 34년(1601)부터 경연을 열어 독서하려 했으나 부인도 세상을 떠나고 몸도 좋지 못하고, 중국장수들 접대에도 시간을 빼앗겨 독서는 차례에 불과했다. 이듬해 35년(1602)에는 김제남의 딸과 다시 혼인을 하였다. 당시 사신들은 ‘1后, 3夫人, 9嬪, 27世婦, 81御妻가 이미 등극하던 초기에 갖추어졌다. 1후가 세상을 떴어도 궁을 대신 다스릴 사람이 있는데 재취하는데 급급한 것은 어찌서인가.’라고 비판하였다.⁷⁰⁾ 재혼으로 독서저해, 동년 9월 3일에는 정원의 경연독촉에 ‘이질’에 걸려 조리 중에 있으므로 휴가를 얻어 수십 일 동안 쉬고 싶다고 하였다.⁷¹⁾ 53세에 19세 된 아가씨를 얻게 된 선조는 1606년에 영창대군(1606-1614)을 낳았다. 그 후 몸도 지치고 잔병이 많아 약이 끊이지 않았다. 경연은 한 번 열면 몇 달 만에 실시하거나 실시해도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신하들의 불만을 샀다. 또 경연을 실시하면 서로 읽고 앉아 있기만 하지 주고받는 말이 없었다 한다. 선조 36년(1603)에는 3월 14일, 17일, 22일, 5월 6일, 8월 6일, 8월 10일 등 간간히 독서하고, 8월 23일에는 유희서가 도적에게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애도의 표시로 경연을 정지하였다. 37년(1604)에는 경연에서의 독서가 거의 없었다. 동년 2월 20일에 이덕형, 이항복 등이 경연문제를 건의하자 선조는 젊어서부터 병이 많고, 이제는 노쇠하고 痰飲症까지 있어서 죽만 먹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⁷²⁾ 이런 사유들 때문에 홍문관의 경연관들도 근무태만인

70) 『宣祖實錄』 卷160 36年 3月 17日(癸酉) 冊24. p.458.

71) 『宣祖實錄』 卷154 35年 9月 3日(壬戌) 冊24. p.407.

72) 『宣祖實錄』 卷171 37年 2月 20日(辛丑) 冊24. p.569.

경우가 많았다. 선조가 병이 잦아 독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하여 경연관들은 게으름이 습관화되어 편히 쉬기 일쑤였으며, 숙직도 결석하는 경우가 많았다.⁷³⁾ 38년 7월 30일에는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다음 달부터 조강만 하도록 하였다. 8월 1일에 3년 만에 조강을 열면서 失語症에 걸렸다는 자백을 하기도 했다. 8월 1일, 8월 4일, 10월 26일, 11월 3일 『주역』의 <건괘>, 39년 8월 7일, 8월 23일 조강 『주역』 <해괘>, 40년 2월 19일 조강에서의 독서가 마지막이었다.

5. 結 言

이상은 조선조 선조의 독서행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연의 구분은 전 왕조처럼 조강, 주장, 석강 등 3강과 야대로 하여 규칙적인 독서계획을 세웠다. 경연장소로는 즉위년에는 비현각, 사정전, 문정전, 文華殿, 宣政殿, 야대청 등 다양한 장소에서 번갈아 가며 경연을 실시하였으며, 피난지의주에서 돌아온 뒤부터는 정릉동 행궁의 별전을 이용하였다. 선조가 경연석상에서 앉는 방향은 서쪽 벽을 등지고 동향하였다. 독서의 시간은 조강 묘시(진시), 주강은 오시, 석강은 미시 및 신시에 실시하였다.

독서할 과목은 四書五經 및 歷史書가 중심이이며, 책 선정은 홍문관과 논의하여 정하게 된다. 초기에는 보편적으로 왕의 독서력을 파악한 다음 경연관들이 선정해서 올린다.

독서방법은 6년까지는 경연관이 대문과 전주를 읽고 난 다음 선조가 다시 읽었다. 7년 5월부터는 선조의 독서수준이 깊어졌다 하여 대문만 풀이하고 전주는 생략하도록 하였다.

둘째, 선조 자신이 채워 기간에 읽었던 책은 『禮記』, 『大學』, 『論語』, 『小學』, 『近思錄』, 『孟子』, 『大學或問』, 『中庸』, 『書經』, 『大學衍義』, 『春秋』, 『綱目』,

73) 『宣祖實錄』 卷181 37年 11月 26日(壬寅) 冊24. p.705.

「詩傳」, 「周易」 등이다.

경연관으로는 이황, 기대승, 윤근수, 이이, 유희춘, 유성룡, 노수신, 박순, 김우옹, 김수, 이국, 최황, 류영립, 이성중, 오억령, 오직, 윤형, 변협, 김응남, 최황, 신희, 홍서봉, 이항복, 윤근수, 이희득, 이덕형, 이홍로, 유영경, 유근, 박홍로, 남근, 성이문, 유간, 박진원, 민덕남, 박안현, 이홍망, 임장, 이현 등이다.

셋째, 독서 횟수를 보면 선조 1년과 6년, 7년만 독서의욕이 있었지 그 외에는 아주 저조한 횟수로 나타났다.

책을 읽은 기간들을 보면, 四書에 해당되는 책은 1-2년 내에 완독했으나 「서경」은 5년(1572)부터 11년(1578)까지, 「춘추」는 11년부터 14년(1581)까지, 「강목」은 15년부터 24년(1591)까지 석강에서 읽다가 중단하였다. 「시전」은 18년부터 24년까지 조강과 주강에서 읽었으나 완독하지 못했다. 27년부터 「주역」을 죽을 때까지 읽었다. 따라서 선조가 재위시 읽었던 책을 3강으로 구분하면, 조강과 주강에서 예기,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서경, 춘추, 시전, 주역 등이었으며, 석강과 야대에서 는 소학, 근사록, 대학혹문, 대학연의, 강목 등으로 총 14종이다.

넷째, 초기에는 이황, 기대승, 이이, 유희춘 등 훌륭한 문신들 하에 독서를 시작 하였으나 시간이 가면서 독서율이 점차적으로 저하되거나 아예 실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개인적으로는 궁첩을 가까이하고, 잦은 질병에 시달려 시간을 빼앗겼으며, 국내적으로는 당파싸움과 소요사태가 지속되고, 외적으로는 7년간이나 일본의 치략으로 인명피해는 물론, 문화재 훼손 등 말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관리는 나태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고, 조정에 문신들도 게을러 실력향상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더구나 경연관들은 왕과 독서토론을 위한 준비는 거의 하지 않거나 결석까지 하는 우를 범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조의 독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선조의 재위 41년간 독서 횟수로나 책의 종수로 판단한다면 선조의 독서력은 역대 제왕들에 비해 아주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